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인생의 생사해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화와 능력, 담대함을 주시고 생명의 종말을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끄기를 하나님 이 없다 하도다. 지혜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시편 14편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5호 2013년 8월 1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불신자 전도·교회 청년들을 섬김으로

###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여름성경학교 유치 통계 통한 미래 VBS 방향 제시

해마다 방학과 함께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VBS) 시기는 교회에서 일 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다. 교회공동체는 여름성경학교와 각종 신앙 수련회를 통해 신앙 점검과 1년의 교회 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VBS나 연령별 중고등부, 대학, 청년 수련회를 목회자와 교사들이 해냈을 때의 감동이 더 큰 까닭에, 교회공동체는 분주한 7월과 8월을 보내게 된다.

이제 어느 정도 한인교회들에서도 VBS와 수련회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VBS가 여름 방학 기간을 뚫고가는 식의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절기적인 행사야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

회 전체가 '미래의 일꾼'인 주일학생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히 준비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주일학교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시 말해서, 여름성경학교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성경학교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다.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다.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교회 VBS의 현주소를 밝혀주는 설문조사(The State of Vacation Bible School)를 발표해 실제로 어느 교회들이 VBS를 실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더 나은 VBS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다.

해 90% 이상의 남침례교회들은 여름이면 어김없이 VBS를 열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보수지역인 남부 지역에서도 역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남부 지역의 교회들 중 3/4 이상이 VBS를 열고 있다. 반면에 서부 지역에서는 50% 정도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교단이나 지역을 떠나 VBS를 유지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안정된 대형교회들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연간 예산이 50만달러 이상인 교회들 중 91%가 열고 있고, 반면에 15만달러 미만의 교회들은 56% 정도만이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있다. VBS와 재정이 연계되는 이유는 바로 VBS가 무료나 약간의 참가비만을 받는 반면에, 교회에서는 교재나 T셔츠, 간식비 등 고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교회 크기 역시 VBS를 좌지우지한다. 평균적으로 25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 원리'가 맞아 떨어지기에, 86%의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25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VBS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바로 예배나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고 25%의 교회는 교회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성경학교는 과거의 전통도 계승하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경학교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계속해서 VBS를 여는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다. 1997년에는 80%이상의 교회들이 VBS에 참가했지만 현재는 60-70%만이 VBS를 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여름방학 VBS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 전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름성경학교는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기획되고 시작됐다. 한마디로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거리로 나가 노는 아이들의 신앙 발전과 성숙을 위해 시작됐기 때문이다. VBS의 역사적 기원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됐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1870년 초반, 미국교회가 방학을 맞아 여름성경학교에 교회공동체의 온 힘을 기울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어린 아이들의 영적 발전이었다. 거리로 나가 노는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성경을 가르치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앙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이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국인 중 거의 과반수(43%)가 13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64%의 중생을 경험한 크리스천 성인들 역시 18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개인의 습관과 행동들을 지켜보면, 특히 영적 행동들은, 아동기에 형성돼 유지 발전되어가기 때문에 방학과 동시에 일제히 모든 교회공동체는 VBS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떠한 교회들이 VBS를 열고 있는가?

바나리서치는 가스펠라이트(Gospel Light)와 함께 설문 조사한 결과, 2012년 VBS를 개최한 수

치를 파악해보니 68%의 교회들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13년 역시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VBS 대신 다른 형태의 여름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대체하고 있는 형태로 볼 때, 갈수록 VBS를 여는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에는 미국 교회 중 81%가 VBS를 열었다.

VBS의 기원에 따른 논란이 있지만 남침례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즉 1898년 뉴욕의 침례교

회(Epiphany Baptist Church)에서 맥주를 마시는 흉을 빌려 거리에 나가 노는 아이들을 불러서 최초의 여름성경학교를 했던 전통을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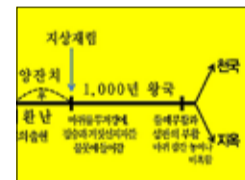
2면

불신자의 결혼, 친밀함을 방해한다!



3면

"교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도 교회 안간다"



7면

불기둥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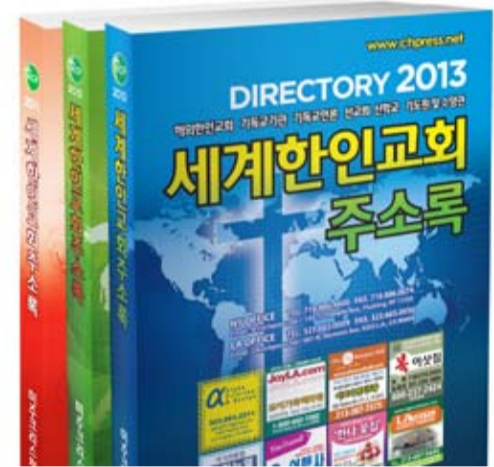
16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경옥 전도사 (수곡미세선교회 회장)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사 고

###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 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당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퀀츠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 시론

##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팔이 되겠습니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교회 안에 “모든 사람”(Everybody), “어떤 사람”(Somebody), “누구라도”(Anybody), “아무도”(Nobod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Everybody)이 그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애초에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음으로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보고에 의하면 이 네 사람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기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거듭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시작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body”의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 4명중 1명이 아닐까? 바로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아닐까를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아무도(Nobody)” 안할지라도 “모든 사람(Everybody)”에게 열려져 있어 “누구라도(Anybody)” 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기회 앞에 “어떤사람(Somebody)”인 “내”가 손들고 나가는, “그런 내가 모인 곳”이 “교회”(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생각이 많아 시작도 못하는 “뚝뚝말꾼”들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헌신일꾼”을 부르십니다(눅10:2).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운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골4:11)하는 “일꾼”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마1:17)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Representation)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나를 고민하며 나누는 “거룩한 욕심”이 본질로 그 중심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이민목회 10여년이 흘렀지만,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20여년 동안 한국에서 교회를 섬겼던 나에게도 아직도 이민목회는 꽤나 낯섭니다. 여러 낯설음들이 있지만 “뚝뚝말꾼”이 많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목회 고참 목사님들에게 여러 문화, 환경, 상황적 분석들을 여러차례하게 다 들어보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아직도 무척이나 거북스럽습니다. 아닌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뚝뚝말꾼”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토”를 매우 잘 붙이거나,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씩 “익스큐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하다보면 습관이 됩니다. 점점 그렇게 굳어져 “성서적 신앙”이 아니라 어느덧 자기에게 형성된 그 습관을 믿는 “자기신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치 않는 고집”(골2:5)에 빠져 스스로 교만해져 점점 “하나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어져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변론과 언쟁을 즐겨하게 됩니다(딤후6:4). 결보기에는 회개하여 깨끗한데 속은 다 썩어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딤후 3:5)가 되고 맙니다. “뚝뚝말꾼”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헌신일꾼”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우리들은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이야기 속에 누가 드러나나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르코스키르케”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뜰에는 성도들이 정성으로 모아 세운 예수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동상의 두 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 동상을 놓고 교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 동상을 두고 다른 장소에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잘려나간 팔만 만들어 새로 붙일 것인지, 아니면 이번 참에 동상을 철거할 것인지? 등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동상을 두 팔이 없는 모습 그대로 세워 두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그 두 팔 없는 예수님 동상 앞에 이런 팻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팔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 교회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섬기는 “추수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점점 더 많아져, 생명력있는 교회 본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불신자와의 결혼, 친밀함을 방해한다!

## CT, 성경적 입장에서 본 사회학자, 언론인, 신학자들의 제언 소개

목회자들은 청년들과의 결혼상담을 통해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많이 듣게 된다. 나와 다른 이성과 한 평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직장에 있는 동료 중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크리스천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학, 저널리즘 그리고 신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타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직접 들어볼 수 있게 해준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할 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들어보자.

1. 꼭 그렇지는 않다 (마크 레그너러스,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Austin)의 사회학자, Premarital Sex in America의 공저자)

종교를 초월한 결혼은 언제나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성경적 원칙은 타월한가? 그렇다. 그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바울은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 같은 진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바로 그것이다. 불신자와

로 개신교인 여성의 셋 중 둘은 “머리”는커녕 “영적으로 동등한” 남자 와도 결혼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이 높은 기준은 적어도 여성에게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신과 영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거나 리더가 되어줄 만한 비범한 남자를 찾으세요. 아, 물론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부지런하고, 직장이 있고, (가능하다면) 잘생겨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찾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세요.” 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가. “시작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늘



2. 화를 자초하지 마라 (나오미 웨퍼 라일리,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신앙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Til Faith Do Us Part): 종교 간 결혼이 미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의 저자)

애틀랜타의 한 작은 복음주의 교회 목사인 데이비드 슬래글이 내

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몇 달 후, 슬래글은 그녀의 태도가 “다시 180도 달라졌다”고 알려왔다.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내가 미국의 기혼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는 이들의 42%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결혼식을 올린다. 사상 최고의 수치다. 이는 미국 사회에 전혀 없는 관용과 융화를 가져오

##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상징, 부부 모두에게 책임 신앙가진 한쪽만 결혼에 내포된 복음 모습대로 살 수 있어

결혼하지 말라. 불신자란, 기독교의 기본교리와 관습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증명할 수 있듯, 부모 중 한쪽이 미적대거나 공공연히 방해하는 경우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르는 일은 정말 힘들다. 가능할 수도 있다. 나는 배우자가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는 청송할 만한 이들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나는 전혀 다른 종교인 사이의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결혼의 목적이 변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지혜로운 권면에 다층적인 의미를 덧입혀왔다. “부적절한 멍에”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가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최적의 배우자를 찾기 위한 몇 단계의 기준으로 발전해버렸다. 이것이 문제다. 왜인가? 결혼적령기 남녀들의 영적 성숙도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주의 개신교인’(evangelical) 남성의 수는 비슷한 여성의 1/3에 불과하다. 그러므

어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독신에 얼마나 근사한 장점이 많은지(물론 분명 장점이 있다)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기준은 바꾸려하지 않는다.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반세기 전과 견주어 오늘날의 결혼은 매우 자발적인 일이지, 여성에게(남성에게도)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이 눈부시도록 훌륭한 것이 어야만 한다는 압박이 어느 때보다 높다. 서서히 결혼은 소수 엘리트만이 절정의 가임기에 맞추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이루어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은 좋은 것이다. 죄인들을 위한 학교이며, 은혜의 원천이다. 그리고 나는 본인의 적극적 선택이나 부르심의 소명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게 어느 20대 후반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남자와 친구가 되었다.

슬래글 부부가 두 사람에게 데이브 중인지 묻자,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하는 답이 돌아왔다. 남자는 강한 무신론자였으므로, 그녀는 “그와 사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친구인걸요. 제가 믿는 궁극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수는 없어요” 하고 단언했다. 몇 달 후, 그녀는 그들이 연애 중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약혼하

기도 했지만, 종교 공동체와 부부들에게 여러 문제를 안겨주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른 상대와 결혼한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배우자와 생활하는 이들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떨어진다.

응답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니, 결혼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경우는 ‘복음주의 개신교인’(evangelical)과 비개신교인(nonevangelical) 간의 결혼이었다. 약 30%의 복음주의자 개신교인이 타 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교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도 교회 안간다”

## UMC, 교회 떠나는 십대들 우선순위 선정 신앙상담 결과 보도

최근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바빠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듯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사실은 없다. 이것은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청소년들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Teens don't show up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맛있는 피자 파티를 공짜로 열어주고, 훌륭한 체육이나 오락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는 집중하라고 하면서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 Teens are very connected to each other now and don't need church to hook up anymore(청소년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기에 굳이 교회를 통해 서로 연결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옛날 청소년들은 교회를 통해 자기들끼리 연대감을 형성하고 그래서 교회를 찾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서로 깊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서로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다니면 삶이 변하고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다

relevant(많은 청소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과 별 관계가 없는 일들에 열심히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각지 않는 부모가 문제 친구연결은 교회 안가도 소셜네트워크로 가능

것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순위로 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80%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마련인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주는데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바빠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모들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4. Unchurched teens se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urch kids and everyone else(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을 보지 못한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에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마치 아무리 다녀도 신체단련이 되지 않는 체육관이나, 전혀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 체중조절 프로그램이나, 오래 수련해도 검은 띠를 따지 못하는 태권도장이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니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5. Many teens get impatient with churches that major on the minors and try too hard to seem

청소년들의 문화를 언급하거나 설교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십대들을 이해하거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채 그저 방법론만 사용되는 것들을 청소년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나중에 기억도 하지 못할 한 때의 유행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포장되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들을 잃게 될 것이다.

## 불신자 전도·교회 청년들을 섬김으로

(1면에서 계속)  
결론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VBS를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 바나리서치의 부회장, 클린트 젠킨(C Jenkin)은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공한다:

1. VBS가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여름 방학기간에 교회에 손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힘들지만, 여름방학 내내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나 갈 수 있도록, 약간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2. VBS를 통해 젊은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공중에 떠 있는 새와 같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을 하지만 봉사나 섬김의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이들을 소비자가 아닌 봉사자로 섬김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교회의 미래가 밝다.

3. 효과적인 VBS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불신자들을 위한 선교와 전도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회 신자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인지 분명히 목적을 확립하고 VBS 주제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교회가 VBS를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하기보다는 커뮤니티와 젊은 세대를 동반시킨 신앙집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의 질적 성장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2면에서 계속)

결혼한 '복음주의자 개신교인'의 약 1/3이 이혼으로 끝나는데, 비개신교인과 결혼한 경우 그 비율이 1/2로 치솟는다.

이런 결과들을 낳는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을 멘다"는 건 대체 무얼까?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커플들이 교리를 따지느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허비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한 조사에서, 종교가 다른 부부들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자주 부딪치지 않았다. 그보다는 관습과 의식들이 더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종교는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에서 살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안들을 두고 벌어지는 의견 충돌이 불행과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슬래글의 이웃에 사는 그 여성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점점 본인의 의도와 멀어지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교회와 예배당을 떠나,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종의 종교적 암흑기로 보낸다. 인생에서 가장 세속적인 시점에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앙은 오묘한 것이라 부지불식간에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아이의 탄생, 실직, 새로운 도시로의 이사, 이 모든 계기들은 사람들에게 소실적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간혹 결혼생활에 해를 끼칠지언정, 그 열망을 좇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결혼생활을 위해 그 갈망을 억누르고 자신의 영적 여정을 포기할 것이다.

### 3. 그렇다! 미혼자들이여 명심하라

(러셀 무어, 남침례교단 '윤리와 종교적 자유 위원회'(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의장이자 남침례신학대학교 신학부 학장)

최근 회심하기 전 오래도록 동성애자로 살아온 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인터뷰를 읽었다. 그녀는 기독교의 성 윤리를 받아들이며 파트너와 헤어졌다. 그녀는 꽤 자주, 새로운 교회공동체의 홈 스쿨링하는 엄마들에게 질문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믿음을 위해 여자친구를 포기했어. 당신은 뭘 포기했나요?" 그녀의 질문은 생각해볼만하다.

아마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도 신자는 꼭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믿어서 오랜 관계를 포기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무작위로 뽑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든 왜 신자는 꼭 신자와만 결혼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아마 대개는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을 함께 매지 말라"(고후 6:14)는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이 구절의 독특한 적용은 참으로 유용한데, 결혼은 바로 그 독특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때문이다.

결혼관계에서 빛어지는 친밀함은 계약 이상이다. 신비한 의미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 사도들은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그 결혼이 결혼으로서 구속력을 지닌다고 단언했다.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 옆에 머물라고 권면한 이유다. 물론 그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관하여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진 말씀은 왜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이 "부당한 명에" 인지를 보여준다.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결혼은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일이다.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혹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상징이다. 아내와 남편 모두 공동체를 향해 그 결혼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 교회는 한쪽에게만 권위와 지도력을 갖는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없이, 오직 한쪽만이 결혼에 내포된 복음의 모습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와 불신자 간의 결혼은 연합의 친밀함을 방해하는데, 이 친밀함은 태초부터 의도된 것으로, 왕의 다스리심 아래서 인간이 공명으로 받은 사명이다(창1:27-28).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며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신자들에게 끌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때 교회는 결혼은 단지 로맨스가 아니라 복음과 소명에 관한 것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힘든 이야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와와 맨 처음 만남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 부목사 청빙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는  
PCUSA 소속 교회로서 Southfield, Michigan 에 위치하여 "3세대가 함께 제자 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원 자격

- 북미주 목회 경험 있는 분
-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PCUSA 목사이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하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신앙고백서
- 추천서 3통 (목회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밀봉하여 발송)
- 최근 설교 동영상이나 CD/DVD/MP3 2 편
- 학위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 제출마감: 2013년 8월 31일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kpcmd.org

### 서류 보내실 곳

KPCMD APNC  
26492 Mandalay Ct.  
Novi, MI 48374  
email: kpcmd.apnc@gmail.com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

#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 (1) 제출서류

-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 4. 목회 계획서
  - 5. 학위 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넷 동영상 1편)
  - 8. 현재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전형방법

- 1. 1차 서류심사
- 2. 2차 개별인터뷰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통지후 인터뷰

### (3) 제출처

-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 2. E-mail: chungang.ar@gmail.com
  - 3. Facebook.com/chungang.ar
- Tel: 0054-11-4921-9395/0509/8860

### (4) 제출방법

- 1. 우편이나 E-mail.
- 2. 기한: 주후 2013년 8월 31일까지 (2013년 8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카페 그레코(Caffe Greco)

조선시대의 영조(英祖)는 가장 장수한 임금이고, 그러기에 옥좌를 가장 오랫동안 지켰던 분이다. 그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들 사도세자를 그 무더운 여름에 뒤주 안에 넣어 생으로 죽게 했던 무서운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1760

년 영조 36년이 되는 해다. 바로 그 해에 이곳 로마의 중심가 콘도티(Condotti) 거리에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 이 중심가 한편에 '카페 그레코'가 니콜라 막달레나에 의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터리에서 두 번째로 오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카페 집이다. 첫째는 베니스의 광장에 있는 카페 휘오린티나(Caffe Fiorentina, 1720)이고.

가까운 거리에 젊은이들의 광장이라는 스페인 계단이 자리하고 있어 명당 중의 명당인 셈이다. 가게는 항상 장소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카페 그레코는 해안을 가진 자의 성공적인 작품이지 싶다. 아무리 좋은 카페 집이라 해도 외진 곳에 위치한다면 누가 찾겠는가! 그리고 그런 외진 곳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오픈했다 해도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이 고즈넉한 장소는 로마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했던 심신을 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카페 한 잔을 시켜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문학이나 음악 및 예술에 대한 얘기를 쉴 사이 없이 나누는 곳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이곳

을 찾았던 사람들을 찾아보니 놀랍기만 하다. 시인 중에는 괴테, 바이론, 헬리, 입센, 스탕달, 키츠, 고골, 하이네, 마크 트웨인, 음악가로 리스트, 멘델스존, 바그너, 베를로즈, 비제, 롯시니 등등. 특히 베를로즈는 이곳에서 무한한 음악적 상상력을 얻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베니스에 살고 있던 카사노바도 여기까지 와서 그 찬란한 끼를 선(?)보였다고 한다. 스페인 의 왕 후안 카를로스, 모나코의 왕자, 라니에리, 그리고 세상을 들썩였던 다니에나 비, 아마도 이 외에도 더 많은 텐데 하도 많으니 기록하던 사람이 더 이상은 기록할 가치가 없었기에 그만두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역사적인 자리를 방문했다. 로마에 오래 살고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나오는 상관없는 장소가 된다. 손님이 로마에 방문할 때마다 이곳으로 안내하고 이

집이 1760년부터 시작한 카페집입니다. 소개하고 사진을 찍고 카페를 한잔 마시는 것으로 순례를 마치고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카페의 역사를 살펴보고 크게 놀랐다. 존경하는 분들이 이곳을 들락거렸고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곳 어디에 그 분들이 앉았던 자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분들의 체취가 지금도 편린(片鱗)으로 남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곳에 앉아서 마시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채로 카페를 마시고 한번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부터는 고즈넉하게 앉아서 카페를 마셔야겠다. 당대를 주름잡았던 사람들의 체취를 음미하면서 말이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인데 벽에는 온통 그 연륜을 자랑하는 고풍스런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또한 작고 앙증맞은 엔틱의 등

근 탁자들과 그에 맞게 작은 의자들이 맞춤처럼 배치되어 있다. 이 거리는 유명한 명품들의 매장이 경쟁하듯 들어서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250년을 버텨 왔다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뚜렷한 역사의식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요즈음처럼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이곳의 카페 집을 유지한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세상에 돈으로 파질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

오랜 역사의 흔적들이 손때로 묻어있는 자리,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아끼던 곳, 이런 곳은 후손들이 어떤 희생이 따른 다해도 지켜내야 하는 역사의 자리가 아닐까 싶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나 칭찬해 주고 싶어진다. 2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정신을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추구해야 할까?

## 푸 / 른 / 초 / 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 아가페선교침례교회)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길거리를 다니면서 길에 버려져 있는 물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눈에 쓸 만한 물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치워가는 날 보면 길거리에 내다버린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대나 식탁의 자 텔레비전 냉장고 어떤 때는 컴퓨터도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쓸 만한 물건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 옆에 놔둡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갔다 쓰라는 의미겠지요, 저는 이것이 미국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버리는데 깨끗하게 빨아서 쓰레기통 옆에 놔두기도 하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하나씩 세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민 오신지 오래되신 분들은 더 많습니. 이민의 연수만큼 쌓였을 것입니다. 별의 별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물건 중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많습니. 여러분,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버려도 괜찮습니. 3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선진국일수록 간단하게 삽니다. 요즘 부자집에 가보면 거실이 깨끗합니다. 뭐 잡다한 것 놓지 않아요. 미국사람들 이사 가는 것을 보면 간단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자기

차에 싣고 떠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쓰레기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선진국의 생활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교회에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잘난 인물들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에는 내가 지금 변변치 못하지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많고 직위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나이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나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과 이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칭

찬받을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교회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 람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까요? 사람들은 가진 것 하면 재물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에 따라서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은 가졌느냐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위나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졌으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네가 가진 것은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하는 것은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게 잡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믿음을 놔버리고 그것들을 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잠시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믿어주시고. 절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됩니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입니다. 기둥 없는 집은 없습니다. 기둥 없는 성전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둥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벗어 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

##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요한계시록 3:7-12)

만 내가 지금 작고 힘이 없지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불의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고 노력하는 것 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와 교인들이 처한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힘이 없습니. 큰

만 내가 지금 작고 힘이 없지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불의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고 노력하는 것 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와 교인들이 처한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힘이 없습니. 큰

찬받을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교회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 람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이해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너무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지키시고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일

## 2013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12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2명: 각\$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 (2페이지 이하)  
3.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3년 10월 15일  
**수여자 발표** 2013년 12월 1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현, 이만형, 김해철 목사로서 강의의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의학적으로 보는 동성애의 실체(2)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의학적 발표들이 있었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 1: I am born this way.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신체 구조와 두뇌가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비성경적인 노래들만 부르는 가수 레이디가가는 한국에 가서 다음과 같은 노래로 한국의 청소년들의 가슴과 생각을 흔들어놓고 돌아왔는데...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야. 나보고 뭐라고 하지마.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분도 하늘의 신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 눈치보지 말고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하늘의 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의학적 조사의 진실: 다르게 만들어진 두뇌와 호르몬이상으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틀린 사실이다.

Dr. Neil Whitehead 외에도 최근 검증되어진 의학적 사실들은 임신24주 이후에 성호르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번 성호르몬 증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출생 시 남녀 두뇌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출생 후에는 남녀 모두 환경영향을 받아 두뇌발달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태아들 뿐 아니라 성인두뇌도 경험, 습관, 훈련 등으로 변화됨이 두뇌 촬영으로 확인됐다. 따

물학적 영향을 받고,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자라났기에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전적,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도 동성애자가 되는 데는 효과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실에 의하여서도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이기도 않다는 분명한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왜곡된 의학연구자료와 정정된 연구 자료들

잘못된 발표: 1991년 캘리포니

잘못된 발표: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가 여성과 비슷하다?

정정된 사실: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두뇌에 자극을 가하면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경회로는 제거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타나 악기를 많이 치는 손가락에 관련된 두뇌는 그 부분이 커진다고 한다. 즉, 많이 사용하는, 또한 많이 훈련하는 행동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들의 두뇌를 죽은 후에 살펴보면 일반인과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한다. 마치 회사가기 전에 날마다 들리는 Peef's 커피숍에, 어떤 날은 회사에 가지 않는 날인데도 나도 모르게 그리

### 유전적 선천적이 아니며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 회복 원하는 동성애자 도울 사랑과 기도 꼭 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것은 동성애자들 거의 대부분은 청년 또는 성인이 된 후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이다. 많은 동성애자들 중 사실상은 동성애자가 되기 전에 이성교제 해왔고 자녀들도 있고 이성교제도 해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동성애자들의 주장 2: 그들은 두뇌의 특별한 구조에 의해 혹은 태아기 때 성호르몬 이상을 겪어서 동성애를 하도록 자신들의 신체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1970년대-1990년대 초의 잘못된 의학추측에 의한 발표들 때문이다. 당시 의학 발표에 의하면 태아의 8주-24주에는 남성 성호르몬 증대가 일어나서 남성 두뇌에 영향을 주고 그 시기에 성호르몬 이상으로 남성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추측이 발표됐었다. 또 다른 잘못된 의학적 추측은 두뇌구조는 보통 임신기간에 정해져 일생 변하지 않고 성적지향도 두뇌에 의해 한번 정해지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동성애들의 선천성은 바로 이렇게 평생 변하지 않는 두뇌의 구조에서 오는 것

라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두뇌, 즉 평생 변할 수 없는 동성애 두뇌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결코 맞지 않다는 의학적 결론이 나오게 된 셈이다.

증거: 동성애가 선천적일 수 없다는 의학적 사실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것은 동성애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두뇌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의해 동성애가 됐었기에 다시 정상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어떤 동성애자들은 진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설명은 다음에) 그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을 먼저 배려하며 존중해줘야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

쌍둥이 연구결과: 2000년도에 호주에 가지고 있는 기록을 사용해 무작위로 쌍둥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남성 일란성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1%였다고 한다.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출생 전 자궁 내에서 동일한 생

애대학교 샌디에고 교수였던 동성애자 레베이 박사(Dr. Simon Le-Vay)는 Science 잡지에 남성 동성애자 시상하부의 INAH-3영역(두뇌에서 성적 감각을 만드는 곳)이 여성과 비슷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의 연구대상자들은 당시 이미 AIDS가 걸린 19명의 게이 남성들과 정상인 남자들 16명, 6명의 여성들을 비교해서 나온 결과였다. 여기서 잘못된 예이츠가 걸린 사람들의 두뇌는 저절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예이츠가 걸려서 죽게 된 19명의 사람들의 두뇌와 정상인들의 두뇌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과와 나무껍질을 비교한 셈이 된다는 의미이다.

정정된 사실: 2000년 Byne과 그 팀이 다시 같은 영역을 조사했을 때는 시상하부에 있어서 INAH-3 영역 크기가 남녀 차이는 있지만,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차이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당시 연구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 동성애자, 이성애자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했었기에 이 연구결과가 훨씬 사실적이라고 발표됐다.

로 운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적지향에 깊이 빠지면 선천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에 선천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성애를 유전 또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들:

첫째,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몸이나 두뇌구조를 갖고 태어났다고 듣기도 했으며,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합리화가 됐을 수 있다. 둘째, 동성애를 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함으로써 자신은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셋째는, 칸제이, 헤머, 리베이 등의 동성애자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학자들이 온 삶을 바쳐 싸우며 연구해 쌓아올린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지금의 "동성애 유행"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나성의 어느 교회 성가대원입니다. 교회의 성가대는 성경에서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성가대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첫 성가대의 수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유

A: 성경에는 '찬양'이란 단어가 있어도 '성가'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사실 성가대라는 명칭을 찬양대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라 하면 성가를 부르는 합창대를 말합니다. 불교나 가톨릭 등 다른 종교에서도 성가를 부르면 통용해서 성가대라 명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라는 명칭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조직된 합창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란 명칭보다 찬양대라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찬양대는 성경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다윗시대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뛰어난 군인이요 정치가요 행정가인 동시에 음악적인 재능을 부여 받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 최초의 다윗찬양대는 골방에 거하며 자기 일에 골몰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의 병을 음악으로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할 때 전국에서 탁월한 정도로 탁월한 수금을 타는 기악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늙어 그의 말년에 나이가 70살이 넘자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찬양대의 조직"입니다. 다윗 찬양대원은 음악 실력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레위인과 사람들 가운데서만 선택됐습니다. 레위인과 사람들은 성전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역대상 23장을 보면 레위인의 총수는 3만8천명이었는데 이들 중 여호와의 전 사무를 담당할 자는 2만4천명 유사와 재판관이 6천명이었고 성전의 문지기 4천명 그리고 악기로 여호와의 찬양하는 다윗 찬양대가 4천명이었습니다.

다윗 찬양대의 조직을 말한다면 헤만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환상을 보는 자란 말로 예언자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만큼 신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양사역을 맡은 자는 음악적으로도 탁월해야 되지만 성령충만한 영적인 사역자가 찬양사역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헤만 양 옆에는 아삽과 여두둔, 두 사람의 지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감독 하에 찬양대원 4천명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288명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전문가들로서 찬양을 배워 익숙해 다윗성가대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무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문성의 원리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골방과 골몰입니다. 교회의 지휘자나 찬양 사역자들은 기도예 전념해 곡 선정을 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문성에 대해 남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가 풀러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슈미트라는 교수는 찬양대의 1차 목적은 찬양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찬양을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중찬양을 처지지 않게 보듯보다 조금 빨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대가 미리 예배찬양을 한번 불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필자는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의 휴가를 가졌다. 휴가 첫날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감명 깊게 불렀던 찬송가 한 소절이 있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 찬송가중의 하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다음 소절로

넘어가지 말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한번 불려보지 않겠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틀림없이 마음의 눈물이 흐를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의 표현에 대해 당신은 얼마

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죄된 본성과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한 고백 아니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외적형식으로 전락하고 종교생활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이 자리 '나 같은 죄인'의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나의 죄인 되었던 자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의 계곡이었는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심장 빠진 사람과 같은 것이다. 심장이 빠진 사람 그것은 겹데기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심장이 빠진 겹데기는 모두 다 죽은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의 자리를 잊어버린 채 진행되는 기독교적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활동이 되고 말 것이다. 늘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기독교는 익숙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에 입문하여 교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가다보면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도 익숙해져가고 교회정치에 대해서도 익숙해져가고 교회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익숙해져간다. 그러나 머리와 입술에서는 익숙해져가지만 마음에서는 처음보다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새삭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둔탁하고 어둡고 불만족스런 옛 자아의 목소리만 가득 차게 된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내려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혹 그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라.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당신의 영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메말라 가게 될 것이다. 어떤 환경 혹은 어느 누가 당신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환경을 지목하겠는가? 어느 누구를 지목하겠는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정예배를 드리며 '나 같

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면서 마음의 깊은 눈물을 경험하였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마음속 깊이 담지 못하고 단지 입술로만 부르며 그다음 가사로 마치 교과서 진도 나가듯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예배의 출발과 찬송의 출발과 섬김의 출발과 봉사의 출발과 윤리와 도덕의 출발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고백이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보라. 당신 안에 참된 신앙 고백의 눈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 잃어버린 감격과 감동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번역 언어 2551개...1년새 13개 늘어

"정말 흥분됩니다. 모국어가 아닌 키쿠유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건너뛰어야 해서 불행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해 6월 모국어인 키엠티부캄베레족의 한 그리스도인은 감격으로 가슴벼차했다. 이 부족은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 오랫동안 이웃 부족인 키쿠유족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동북쪽 음푸말랑가 지역 주민들도 지난해 11월 한자리에 모여 모국어 성경이 나온 것을 감사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선보인 이곳 토착어 은데벨레어 성경 5000권은 2시간 만에 동이 났다. 이들 언어를 비롯해 파푸아뉴기니, 남수단, 시에라리온 등의 토착어 13개로 번역된 성경이 지난해 새로 나왔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는 2012년 말 기준 단편(쪽복음)을 포함해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전 세계 7105개의 언어 가운데 2551개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1년보다 13개가 늘어난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한 성경 전서가 번역된 언어는 484개로 불과했다. 2011년보다 9개 늘어났다.

모국어 성경이 없을 경우 선교는 더딜 수밖에 없다.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번역 사역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성경번역은 단기간 이뤄지지 않는 험난한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대체로 신약에 이어 구약을 번역하는데 이 과정에서 번역 대상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이해시키지 않고선 사역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고유의 말만 있고 표기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어의 경우 매개어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경번역선교회(GBI) 안드레 선교사는 "성경번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이

해시키는 제자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역(1067개)이다. 이어 아프리카(748개), 아메리카 대륙(519개), 유럽(214개) 순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15년 말까지 100개 언어로 성경전서를 더 번역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올해 이미 4개의 성경전서가 출판됐고 10여개 성경이 출판준비 중이다.

그레이엄 목사 '새 선교 사역' 선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만 95세가 되는 오는 11월 미국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그레이엄 목사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 나이가 되면 건강이나 힘이 부족해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미국을 복음으로 깨우게 해달라는 오랜 기도 끝에 새로운 사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 소망 미국(My Hope America)'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사역은,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된 미국인들의 사례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촬영해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와 함께 소개하는 미디어 선교 사업이다.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미국 복음화의 열정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목사는 '내 소망 미국'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개해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수십만 명의 헌신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1만 6000여개의 지역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영상과 책자 등 모든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개인이든 단체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다"며 "미국을 향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소망 미국'이야말로 오늘날 이 나라를 위

해 가장 적절한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확신이 와서 이 사역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 선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힘있게 쓰시도록 기도하고 후원해달라"고 그레이엄 목사는 당부했다.

미정부 종교비자 강화... 발급건수 4년새 절반

미국 정부의 종교 비자(R-1) 단속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크리스천티투데이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R-1 비자는 교회와 선교단체 등 종교기관에 근무하는 이민자들에게 30개월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성직자 외에 행정·사무직원에게도 발급되고, 1차례 갱신되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2008년 R-1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취업을 허용한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른 직업을 병행하거나 가족이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토안보부는 수시로 종교단체를 무작위 방문,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상황, 심지어 단체의 재정 상태까지 조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대거 발급할 계획이지만, R-1 비자 관련 규정은 그대로다. 크리스천티투데이는 "한국에서 안수 받은 목사가 미국의 협력교단 산하 한 이민교회에 청빙을 받아도 R-1비자 발급이 안 된다"며 "미국 교단이 한국의 목사 자격을 인정해도, 이민청에서는 미국 근무 경력에 없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시애틀의 한 한인교회 담임목사는 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멕시코 이민자들이 모이는 나사렛교회는 캐나다 출신 목회자를 새로 청빙했다가 R-1비자 갱신이 거부돼 15일 내로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서를 받았다. 스페인어를 쓰는 이민교회가 영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를 청빙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R-1비자 발급 건수는 2008년 1만 건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434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중취업 금지 조항 때문에 교회의 사례비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주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문

제다. 크리스천티투데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이민교회인데, 정작 목회자의 이주는 까다로워져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 기독교기업, 성경적 실천 앞장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면 흔히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하면서 종이 가방이나 종이컵의 한 귀퉁이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 완고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기독교 기업들은 단순히 도덕적 가치관을 주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적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보수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공격을 받는 사례로는 지난 6월 직원들에게 '사후피임약'의 의료보험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미술용품 유통업체인 '하비로비'를 들 수 있다. 또 치킨버거 업체인 '치필레이'는 대표가 동성연애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한인이 창업한 의류업체 '포에버21(사진)'은 쇼핑백에 요한복음 3장16절을 인쇄하고 있고, 물류운송업체 '커버넌트 트랜스포트'는 트럭에 성경 구절을 크게 써넣었다. 이처럼 기독교 기업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사회 공헌과 나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력하는 측면도 많다.

하비로비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의 2배가 넘는 시간당 14달러를 지급한다. 늦게 온 일꾼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를 따르기 때문이다. 남침례교인인 스티브 그린 하비로비 대표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도 먼저 유리한 가격을 내놓고 협상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정직하게 제시한다"고 밝혔다. 치필레이는 자선 재단을 설립해 빈곤층의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파산 상태의 젊은이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콜게이트대학의 더글러스 히스 교목은 "기독교 기업이 된다는 것은 마케팅 계획이나 브랜딩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실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기독교 기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 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3년 본 총회는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 목회자 육성 및 선교와 상호 협력 목회 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 안수
  - ① M.A, M.Div는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 ② B.A는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 ①구약성경 ②신약성경 ③조직신학 ④교회사 ⑤헌법
- 2) 논문 : 에베소서 6장 12절
- 3) 설교 :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및 필기고시와 면접 일정

- 1) 제출 기간 : 2013년 9월 6일까지
- 2) 고시 및 면접 : 2013년 9월 16일
- 3) 고시 장 소 : 하워드존슨호텔(플러톤)

5. 기타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 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 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 활동)
-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8 / 최명상 목사 (323)317-3749

# 불기 등

김홍도 목사 (금관교회 동사)



요사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이단집단들이 "재림"과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때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올바른 성경말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명확히 일치하는 재림사상을 말세를 만난 우리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1. 느브갓네살 왕이 본 이상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그만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술사나 박사나 점쟁이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꿈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좌우간 술사나 점쟁이들에게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몽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을 베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엄한 명령을 내렸

에 다니엘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느브갓네살 왕이 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앞에 말하기를 단2:30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라고 먼저 말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달리 먼저 하나

습니다. 그리고 2:34-35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거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나이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나라들을 심판하러 재림하심을 의미합니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단7:13-14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나라는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 2. 신약의 종말론,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24장은 복음서의 소개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24:34-36까지에 무화과나무를 비유해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마21:19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죽게 했는데, 이것

가(월) 나누는데, 이는 후3년반이 전3년반보다 환난과 고난이 더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장면이 살전4:16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고, 주와 함께 있던 영혼들이 부활한 몸과 연합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홀연히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변화되어 휴거(rapture)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기간이 끝날 무렵 지금까지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사탄마귀를 다 결박하여 무저갱(bottomless, pit)에 가두고 예수님이

판을 받아 영원한 유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짐승)와 거짓선지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무저갱에 가두었던 마귀 사탄을 풀어놓고 죄를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고 살던 자들은 마귀의 시험을 모르고 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마귀들을 풀어 놓아 시험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계21:2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휴거되었던 성도가 천년왕국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에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자연인 그대로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재난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역사상 최고로 많은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살다가 잠깐 무저갱에서 풀려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큰 부대를 이루어 예수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지만, 얼마 못되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 종말론

(다니엘서 2장 31절-36절, 마태복음24:32-36)

남게 영광을 돌린 겸손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단2:32-33에 "그 우상의

다. 10발가락은 옛 로마제국영토 즉 구라파에서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연합체(EU)를 이루면 예수

은 무화과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표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 후 2000여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했는데, 마24:32-3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에서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한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것은 멸망한지 약 200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곧 1948년 5월14일입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동안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천년이란 상징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의미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지옥불은 유향불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하고 천국의 길이 순금으로 포장되었다면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공력에 따라 혹은 작은 나라 혹은 면장이나 시장과 같이 두 고을 다스리고 있을 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계20장에만도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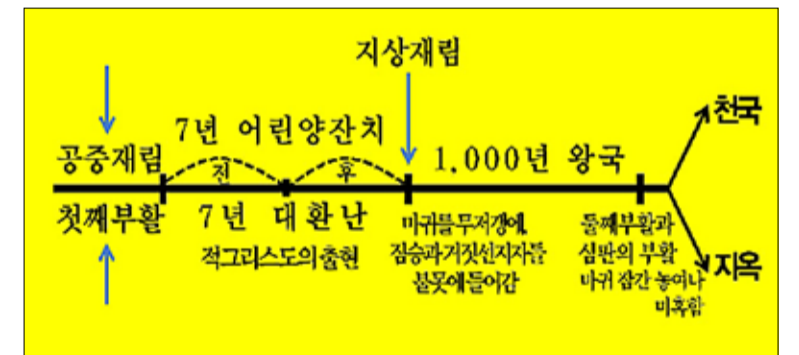
###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가?

① 천년왕국은 에덴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에 옛뱀 마귀가 침투하여 하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에덴동산을 파괴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건설되어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1,000년은 계20장에 만도 6번이나 나옵니다. (2.3.4.5.6.7 등)

② 하나님의 약속이행입니다. 눅1:32-33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22:29-30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성경말씀이 성취됩니다.

③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Thy Kingdom Come)", 밤낮 주기도문 외 우면서 하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① 무천년설(Amillennialism)을 주장하는 이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이 황금기를 맞이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재난과 사고



와 질병이 많아지는 것이지 결코 황금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② 후천년설(post-millennium)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무천년설과 같이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③ 전천년설(pre-millennium),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 목사가 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받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어 휴거되어 낙원에 있던 영혼이 부활한 몸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늘(낙원)에서는 어린양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땅에서는 전에 없던 대환난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세계를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세계를 통치하며 자기에게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장차 예수님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설립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흥내 내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을 돌로 나누어 전3년반(42개월)과 후3년반으로(42

④ 혼(Soul)의 구원과 상급을 위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살전 5:23)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신약생활하면서 혼과 마음고생이 심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마16:5에 "누구든지 제 목숨(혼, 푸슈케)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영혼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원천국에서 보상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마25:21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열 고을, 다섯 고을, 두 고을을 차지하라는 말씀도(눅19:17-19) 있습니다. 고난 받지 못한 사람, 주님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머리 (금)-바벨론(BC625-BC538)**  
**가슴,팔 (은)-메데,파사(BC538-BC331)**  
**배,넓적다리 (동)-헬라-헬라(BC331-BC168)**  
**두 종아리 (철)-로마(동.서) (BC331-BC168-AD1445)**  
**발가락(진흙과 철)-구라파 연합국 (BC168-AD476 서로마 AD1445 동로마)**

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꿈을 말씀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느브갓네살 왕은 같은 명령만 반복해 내렸 습니다. 모든 술사, 박사, 점쟁이들이 다 목 베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자기에게 시간의 말미를 주면 꿈도 해몽도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은 후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10발가락)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이었 나이다"라고 말하니까, 느브갓네살 왕은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알아맞힌 것을 보니 해몽도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

님의 재림이 곧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구라파연합국에서 무화과(EURO화) 공동화 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7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바다에 나타난 4집승과 10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발가락시대 혹은 10뿔시대에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연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50. 창조론의 기초(1) 창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즉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 만약 인류가 수십억 년 동안의 의미 없는 자연적인 화학반응의 결과인 진화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삶은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도 성취한 결과도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적도 없다는 진화론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목적을 갖는 이유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창조를 반대하는 진화론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악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시간 하루가 아닌 긴 기간일 것이란 천동설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없다. 세상에서 들어 온 것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어차피 자기 만든 것도 아닌데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분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은 흠어

보는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belief)에 근거해서 해석하게 된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미국 남북전쟁의 격전지에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총알들이 발견될 수 있지만 그 총알들은 별 정보를 주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발사되었는지 어떤 궤적을 지나 여기에 있는지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알아가는 방법은 그 사건 가까이 있었던 진실한 증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상세하게 연구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증거들이 어떻게 그 증인의 설명을 지지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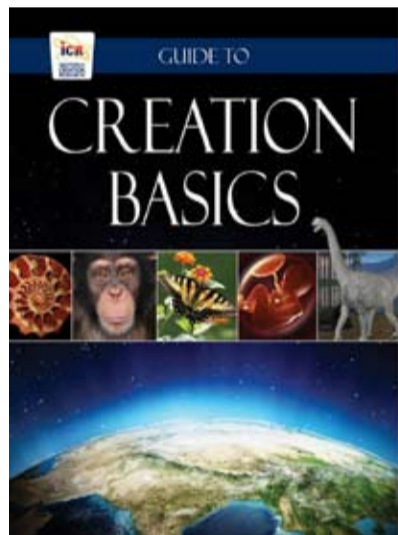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화석이나 DNA 혹은 행성들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세상의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함께 역사가 들어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과거를 알아가는 데 바로 이 역사를 사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은 흠어

과학과 성경이 다르다면?

그런데 만약 어느 과학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반대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성경은 지구는 수 천 년 되었고, 생명체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피조물들은 초능력이 있는 창조자에 의해 잘 디자인 된 것들이며, 같은 종류(kind)에 속한 동물들끼리만 서로 혈연관계가 있으며, 죽음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 온 이후에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속 역사는 다르게 말한다. 지구는 수십억 년 되었고, 생명체는 무생물과 에너지와 시간의 합작품인 화학진화로 생겨났으며, 생물들은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인 진화를 통해 우연히 생긴 것들이며, 모든 생물들은 서로 친척관계에 있으며, 죽음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도 전에 있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다분히 맹목적인 믿음으로 성경이 옳다고 성경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객관적인 인정과 주관적인 확신에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확신을 위해 복음전파를 위

## 자신의 확신과 복음전파 위해 창조 공부 필수 생명, 세계, 기원, 목적,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답 얻어



**창조**  
우리가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믿음의 근거는?  
복음의 시작은?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  
해 지구만 생명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졌을까?  
세상과 나와의 무슨 관계인가?  
왜 고통이 있나?  
창조에 답이 있다!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분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나는 분명하게 말하였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해야 할까? 창조 연구를 통해 우리는 생명, 세계, 기원, 목적 등 가장 의미심장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물과 역사의 재구성

사실(fact) 자체는 어떤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가

저 있는 남북전쟁의 총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만한 역사에 비추어 해석을 한다면 그 총알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조의 증거들도 성경의 역사에 맞추어 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의 참 의미를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지구 밖에서 얻은 것이든 혹은 지구 안에서 얻은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정보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서로 잘 어울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해 창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섬세한 DNA의 디자인에서부터 수많은 별들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라. 그 위대한 창조자를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거대한 창조물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게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람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그것을 모두 합한 것보다 귀한 존재이므로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오늘 있다가 아귀에 던져지는 들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6:26, 30).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 창조자에 대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항의성의 성품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아이폰으로 통화 이상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아이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문득 우리글의 띄어쓰기가 글의 아름다움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섬세한 터치로 문장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아예 마음먹고 띄어쓰기를 무시하며 글을 써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엉뚱한 문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잘 지키려고 보니 이런 섬세한 작업은 누가 고안한 것인지 살며시 궁금해졌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우리글을 만드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되도록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동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파란 눈의 외국인 호버트 박사입니다. 최초로 한글교과서와 한글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죠. '성품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훈 아래 자란 호버트 박사는 미국 명문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신학교를 수학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선에 파견될 영어교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조선에 갈 것을 청했지요. 1886년 7월 조선에 첫발을 내디딘 호버트는 각종 근대학문을 가르치는 육영공원에서 5년간 학생들에게 영어와 역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이 세계정세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조선인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당시에 한글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버트는 포기하지 않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며 우리말을 배워가기 시작했지요.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한 결과 호버트는 한국에 온지 3년 만에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은 순 한글로 만들어진 조선 최초의 교과서 '사민필지'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호버트 박사는 그만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 조선인들을 위한 교과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한글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면 '장비가 말을 타고-장비가 말을 타고'처럼 의미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최초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는 한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대중언어매체로서 영어보다 더 우수하다. 한글을 띄어쓰기하면 오해를 줄이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무조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진정한 창의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품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43:19).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로 창의성이랍니다. 고향땅을 떠나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나라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여 한글띄어쓰기를 만든 호버트 박사의 창의성도 사실을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성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문 양장



### 사도행전 주해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적응,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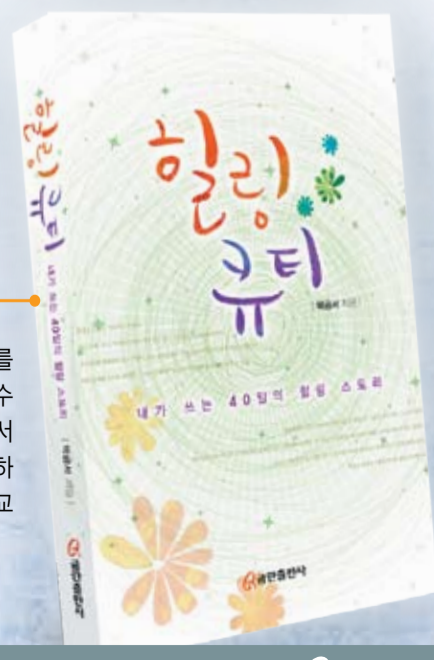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 풀러신학교, “동성애 그룹 인정한적 없다”

## 기자회견서 “원테이블은 여러 성 이슈 토론그룹” 밝혀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는 지난 7월 13일 AP통신이 보도한 “동성애그룹을 인정했다”라는 기사는 왜곡 보도이며 풀러신학교는 어떠한 동성애 그룹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본교 이광길, 황진기, 이학준, 민종기 등 한인교수들과 후안 마르티네스 부총장은 지난 5일 정오 본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P통신이 보도한 기사가 마치 원테이블(One Table)이라는 동성애 그룹을 공식인정하는 것으로 기사화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원 테이블(지도교수 글렌 스타센 박사)은 신학교내 동성애자 학생들로 구성된 정치적 그룹이 아니며, 총장인 마크 래버튼 박사가 승인한 그룹도 아니다. 원 테이블은 전임총장인 리처드 마우 박사 시절 승인됐으며, 원 테이블은 풀러 내에 있는



풀러신학교는 최근 교내 24개 학생그룹 중 하나인 One Table이 학교에서 승인한 동성애그룹이라는 AP통신 기사가 왜곡된 기사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개의 학생그룹 중 하나로서, 성과 동성애 이슈를 포함해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학적, 윤리적, 목회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도록 허락된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학교가 이 학생그룹을 허락한 이유는 학생들이 오늘날 사역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성경적, 목회적으

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원 테이블이 동성애자 학생들로 구성된 성소수자그룹(LGBT group)으로 소개된 것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AP통신의 인턴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는 △원 테이블은 12명으로 구성된 리더그룹이 있으며 니콜라시오 씨는 그중 한명에 불과한데 마치 원 테이블 전체 리더로 소개가 된 점 △원 테이블의 회원들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마치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오해하게 한 점 △원 테이블 리더들을 모두 인터뷰해놓고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가진 닉의 입장만을 기사화 한 점 △닉의 입장이 원 테이블 전체의 입장인양 보도한 점 등이 왜곡된 기사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풀러신학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공동체규범에는 ‘결혼은 하나님이란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세우신 영속적 언약(창1:26-27; 2:24; 막10:6-9)이며 이와 같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명시돼있다. 관계자들은 공동체규범에 명시돼있

듯이 동성애적 행위와 동성결혼은 풀러신학교의 정책에 분명히 위배되며, 모든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학교의 공동체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본교 내 신학대학원, 선교학대학원, 그리고 심리학대학원의 모든 교수진들은 해마다 3-4차례 모여 공동체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서명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재 4,500여명의 풀러신학교 재학생 중에는 커밍아웃한 학생이 3명이다. 그러나 3명의 학생이 자신의 성향은 동성애 쪽이지만 동성애가 비성경적이기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기위해 동성애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재학을 하는데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는 재학생들 비성경적이며 공동체규범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며,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퇴교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입학 신청자 중 동성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입학불가 처리하고 공동체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을 퇴교 조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에 원 테이블 이슈

가 터지게 된 것은 원 테이블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는 일부회원의 개인적 의견이 마치 이 그룹의 전체의 입장인양 표현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현재 홈페이지는 개정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 테이블 회원 중에 한인학생은 전무하며, 문제를 야기한 니콜라시오 씨는 이번 일로 한인교회와 학교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된 것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원 테이블의 활동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도해나갈 것이며,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인 이슈들을 다뤄 교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또 만약 원 테이블 소속 회원들 중 친동성애적인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사적인 공간인 SNS 등을 통해 원 테이블을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룹으로 오해해 성경과 풀러신학교의 공동체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나타낼 경우 해당 학생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 가정사역 칼럼

## 배우자감을 만나려면...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배우자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7절 이후 말씀처럼 기도도 구하고,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리는 액션(action)이 필요합니다. 곧 내 배우자감이 있을 만한 모임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고 싶다면,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곧 여름수련회, 선교여행, 전도모임, 봉사모임 등입니다. 여름이 되면 각종 수련회와 선교여행으로 청년들은 분주합니다. 이러한 각종 모임들을 통해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과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며 깨달은 바는 모임의 영성이 높을수록 모일수록 결혼할 수 있는 커플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더라도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뜨리는 겸비(謙卑)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곧 겸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기준들, 내가 선호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못된 허상을 찾게 하는 기대나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대의 많은 부분들이 반드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혼자들은 배우자감에 대해 상당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에게 ‘어떤 배우자감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나를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자기개발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집안도 화목하고 믿음이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보면 형제가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나이가 40대 중반이나 되어야 여러 분야에서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형제자매들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환경에서 공급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결혼을 통해 배상받으려는 마음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란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적응하며 빛이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보다 높고 고집이 셀수록 만남이 어려워 집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풀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앞을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업이나 직장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한다든지,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생길 때 그러한 어려움이 속히 통과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순직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기준(마음을)을 나도 갖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함들을 나도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과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순직하게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배우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런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마6:33).

이메일: miyukm@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동부(NY, NJ)교회</h2>		<h3>뉴욕세마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해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뉴욕중부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찬양: 오후 8:30 (매주 주, 주3)</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창립년경축공연: 오후 1:30 영양회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h3>롱아일랜드성결교회</h3> <p>담임목사: 김석형</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선한목자교회</h3> <p>담임목사: 황영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h3>중부뉴저지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원호</p> <p>주일예배: 오전 1:00 영양예배: 오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2:00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규성</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퀸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NCF 영어: 오전 1:30</p>	<h3>한마음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마이클</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기타지역 교회</h2>	<h3>갈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제자훈련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남부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성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p>	<h3>덴버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몽고메리교회</h3>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벅스키온타리오교회</h3>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h3>벤델교회</h3>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보스턴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형헌법: 오후 8:00 초중부예배: 오전 9:00(월-토) 영양, 유년, 노년: 오전 10:00</p>	<h3>볼티모어교회</h3> <p>담임목사: 이영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p>	
<h3>살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p>	<h3>새시온침례교회</h3>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p>	<h3>시애틀평강장로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예배: 오전 6:30</p>	<h3>알칸사 제자들교회</h3>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앵커리지얼린교회</h3>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h3>엘파스얼린교회</h3>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p>	<h3>영생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h3>온누리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h3>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주예수교회</h3>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h3>큰루터교회</h3>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제47기(금, 토, 주일)</p>	<h3>타코마 삼일교회</h3>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h3>타코마새생명교회</h3>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예배: 오후 2:00(영/한)</p>	<h3>타코마 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수영</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템피파조교회</h3>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올림픽)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h3>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조진보</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h3>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지역</h2>	<h3>아가페선교침례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한)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 선한목자교회 간증집회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가 오는 25일(주) 오후 6시 본 교회에서 새성전 이전 기념 대축제로 영신기업 미국부 회장 최영신 장로 간증집회를 갖는다.  
▲문의: (718)229-5991

## 하이티를 위한 자선음악회

뉴욕출신 한국 '슈퍼스타 K3'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인정받은 Christina Lee(이영주) 자매가 하이티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특별히 미국 유명 가스펠싱어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성가곡을 연주한다고. 일시는 18일(주) 오후 6시30분 장소는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 티켓은 10달러.  
▲문의: (718)357-3355, (917)593-9346

## 이노비 드윗 너싱홈 공연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8월 23일(금) 오후 2시30분 맨해튼 드윗 너싱홈(3rd Fl., 211 East 79th Street)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노비 음악감독이자 세계적인 제즈피아니스트인 송영주트리오가 꾸미는 제즈 프로그램으로 콘트라 베이스 이준삼, 드럼 임주찬이 협연한다.  
▲문의: (917)822-4346

## 영적 지적 업그레이드...필요 채우겠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5회기 이미션 회장 취임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5회기 이미션 회장 취임예배가 지난 달 29일 할렐루야뉴욕교회(담임 이광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1부 취임예배는 전희수 목사(부회장) 사회로 김명숙 목사 대표기도, 장만자 목사 성경봉독, 조문자 목사 특송, 장석진 목사(뉴욕교협 총회장) 말씀, 김경자 목사 봉헌기도 등의 순서로, 2부 취임식은 김정숙 목사(총무)의 사회로 이미션 목사(회장) 인사, 임명장 수여, 활동의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축사, 장석진 목사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미션 목사는 취임인사말에서 여성목회자들의 영적, 지적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며 "올해 표어인 '깊은 데로 가서'(눅5:4)와 같이 우리 여성 목회자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여성목회자들과도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장석진 목사는 '목회의 영광'(고후4:7-11)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자들로 구분된 우리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존

재"라며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감격은 분명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성목회자들이 뉴욕의 플러싱을 중심으로 바이블벨트, 치유의 벨트를 만들어 나갈 때 뉴욕과 미주의 복음화가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5회기 임원 7명과 분과위원장 12명, 지역협동총무 8명에게 임명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제5회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조직.

△임원: 회장 이미션, 부회장 전희수, 총무 김정숙, 서기 김신영, 부서기 장만자, 회계 박현숙, 부회계 김순자 △분과위원장: 목회 장경혜, 선교 이은혜, 교육 배인순, 상담 심화자, 사회 조상숙, 음악 조문자, 섭외 권캐더린, 친교 김희순, 복지 김영민, 홍보 전광희, 회원관리 오명희, 기도 박드보라 △지역협동총무: NY 이승진, NJ 박정희, PA 양승인, CT 이추실, TX 이화진, GA 정사라, CA 백석영, MD 최현림.  
(정리: 유원정 기자)

## '바른신앙, 순종하는 삶' ...제4회 한미농인신앙수련회 첫 도심 속 수련회, 농아인에도 큰 도전

한미농인선교연합회(KADMA, 회장 강철해 목사)가 주최한 제4회 한미농인신앙수련회가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펜실베이니아 호텔에서 개최됐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농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올해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가 주관처를 맡으면서 특별히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애틀랜타, 뉴욕 등 미주 각 도시의 한인 농아인 120여 명이 참석해 미주지역 500여 명 가운데 25% 가량이 참석한 셈이다.

"바른 신앙, 순종하는 삶"(시 119:33)이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 첫날은 양승호 목사(뉴욕교협 총회장)가 설교하고, 최예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가 축사하는 등 뉴욕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최초로 미주한인농아선교대상 시상식도 있었다. 첫 시상자는 남가주농아교회 원로인 이진구 목사가 수상했다. 이진구 목사는 1980년 9월 30일 LA 한인 타운에서 처음으로 농아인교회를 개척해 농아인들을 돌본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 부흥회는 특별히 서울영락

농인교회 담임 손천식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했다. 지난 3회까지는 한미농인선교연합회 소속 농아인교회 담임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주강사를 맡았으나 올해는 은혜를 더하는 차원에서 한국에서 강사를 초빙했다.

첫날 저녁 부흥회에는 DIM댄스 선교단이 선과 악이 싸우는 우리의 마음을 묘사한 댄스를 선보여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인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둘째 날은 탈북농인 기독교인인 강지담 자매의 특강이 있었으며 매일 각 도시의 농아인교회들이 담당하는 교제의 시간을 진행했다. 3일째는 맨해튼 관광을 갖기도 했다.

이번 대회와 관련 회장 강철해 목사(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에바다부)는 "지난 수련회는 자연 속에 열렸는데 올해는 도심 속 호텔에서 열려 농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4회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 주관처인 뉴욕농아인교회 이철희 목사는 "아외에배 외에 수련회를 나가본 적이 우리 뉴욕의 농아인들이 이렇게 큰 수련회를

준비했다는 것에 놀랍고 감사드린다"며, "타주에서 한인 농아인들이 이끄시는 선배님들과 뉴욕교계의 도움으로 이 수련회는 개최하게 됐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가주농아교회(담임 강상희 목사),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 북가주농아교회(담임 백남원 목사),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에바다부(담임 강철해 목사), 워싱턴농아교회(담임 황창호 목사) 등이 참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선관위 활동 개시 정/부회장, 감사 후보마감 9월 16일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훈 목사)가 제 39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홍 목사) 일정을 발표했다. 뉴욕교협은 지난 7월 31일부터 선관위 활동을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등록은 8월 16일(금) 정, 부회장, 감사 임후보를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9일(월)부터 16일(월) 오후 5시까지이며 언론토론회는 9월 30일(월) 새가나교회(담임 이병홍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은 할렐루야뉴욕복음화 대회가 끝나면 사실상 회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통례다. 회장 김중훈 목사는 지난달 18일 뉴욕에 일장로교회에서 할렐루야대회 진행 관계자들을 초청, 대회 기간 동안 수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교협 임원선거는 회장에 현 부회장 김승희 목사가 등록할 것으로 보이며, 부회장 후보로는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어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 40회 총회 및 임원선거는 오는 10월 17일(목)로 잠정 발표됐다.  
(유원정 기자)

제5회기 이미션 회장 취임예배가 지난 달 29일 할렐루야뉴욕교회(담임 이광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1부 취임예배는 전희수 목사(부회장) 사회로 김명숙 목사 대표기도, 장만자 목사 성경봉독, 조문자 목사 특송, 장석진 목사(뉴욕교협 총회장) 말씀, 김경자 목사 봉헌기도 등의 순서로, 2부 취임식은 김정숙 목사(총무)의 사회로 이미션 목사(회장) 인사, 임명장 수여, 활동의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축사, 장석진 목사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미션 목사는 취임인사말에서 여성목회자들의 영적, 지적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며 "올해 표어인 '깊은 데로 가서'(눅5:4)와 같이 우리 여성 목회자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여성목회자들과도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장석진 목사는 '목회의 영광'(고후4:7-11)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자들로 구분된 우리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존

재"라며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감격은 분명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성목회자들이 뉴욕의 플러싱을 중심으로 바이블벨트, 치유의 벨트를 만들어 나갈 때 뉴욕과 미주의 복음화가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5회기 임원 7명과 분과위원장 12명, 지역협동총무 8명에게 임명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제5회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조직.

△임원: 회장 이미션, 부회장 전희수, 총무 김정숙, 서기 김신영, 부서기 장만자, 회계 박현숙, 부회계 김순자 △분과위원장: 목회 장경혜, 선교 이은혜, 교육 배인순, 상담 심화자, 사회 조상숙, 음악 조문자, 섭외 권캐더린, 친교 김희순, 복지 김영민, 홍보 전광희, 회원관리 오명희, 기도 박드보라 △지역협동총무: NY 이승진, NJ 박정희, PA 양승인, CT 이추실, TX 이화진, GA 정사라, CA 백석영, MD 최현림.  
(정리: 유원정 기자)



농아인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부터 최예식 목사, 고용민 목사.

## "오직 주님으로만..." 가나안 정복하라

뉴욕목사회 목회자세미나, 감사 고용민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6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고용민 목사(광시감리교회 담임). 최예식 회장은 "10월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내정돼 있는 고용민 목사가 뉴욕을 방문했다. 오늘은 2시간에 걸쳐 2가지 주제로 강의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가나안의 나눔"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고용민 목사는 △선악과 의미 △사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 △금송아지의 현대적 의미: 몰골(몰레신),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했을까?의 주제를 풀어나갔다.

고 목사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순종을 잃었다"며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침묵하며 3년을 지내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회복됐다, 순종 없이 영적 세계에 이를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사마리아는 우리 속에 있는 편견으로 '이곳은 안돼'하는 내 속의 '나쁜이' 복음으로 전도돼야 한다. 땅끝은 바로 내(내 안의 선악)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송아지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의미하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마음의 7가지 죄성인 공포 두려움(gp), 혼돈 무질서(기르가스), 교만 교육(아모리), 경제 저주(가나안), 험기(브리스), 축제(히위), 억압(여부스)을 의미하며 가나안은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땅인 믿음의 세계"라며, "가나안 정복은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고 목사는 치유사역 간증을 곁들여 강의를 진행했으며 신청자에 한해 식사 후 오후 강의를 계속했다.  
(유원정 기자)

## 미자립교회 후원모금·목회자부부 초청 뉴저지교협 주최 소망음악회 성료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주최한 소망음악회가 지난 28일 저녁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열렸다. 140명의 출연진을 포함해 약 350명이 참석한 이 음악회는 미자립교회 후원 모금과 목회자부부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CSO디렉터 정혜성 목사의 시집 '길',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제공한 '현미잡곡 쌀' 한 포석이 배부됐다.

이날 모금된 금액은 각 교단 별로 선별해 지급될 예정이며 뉴저지교협은 8월 15일까지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PAY TO : CKCNJ / P.O.BOX 205, Palisades Park, NJ 07650).

1부 음악회는 민혜연 CTS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회사 박상천 목사, 기도 양준길 목사, 합주 엘림크리스천밴드, 중창 필그림교회남성중창단, 합창 소망교회 글로리아어린이 합창단, 독창 유재용, 중창 뉴저지 사모합창단, 합창 엘리자베스교회 성가대, 독주 김윤식, 광고 박근재 총무, 헌금찬양 전병찬, 중창 뉴욕 밀알합창단, 합주 송에스더 송다운 김혜경, 합창 뉴저지장로성가대, 독창 최은호, 합창 뉴욕기독부합창단 그리고 출연진의 연합합창 후 정창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소망음악회 마지막에 전 출연진이 합창하고 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1/8	7.7cm × 5.8cm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외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여름철 부흥회 성황

봄가을로 열리던 부흥회가 여름 한가운데 8월임에도 지역교회들에서 열리고 있다. 설립기념 혹은 여름성령축제, 말씀집회 등의 이름으로 열리는 부흥회로 남가주 일원 한인교회들의 부흥에 대한 열망을 엿보게 된다. [편집자주]



나성영락교회 40주년 기념 심령대부흥성회에서 이찬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나성영락교회 설립40주년기념 심령대부흥성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제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설립 40주년 기념 심령대부흥성회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눅1:38)라는 주제로 2일부터 4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금요일 오후 7시 영락교회 본당을 가득 메워 로비에까지 집회참석자로 가득 찬 가운데 열린 첫날 저녁 집회는 다드림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경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 김천영 장로의 기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김경진 목사의 강사소개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환호를 받으며 강단에 선 이찬수 목사는 '진정한 축복'(시128: 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찬수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중의 위기다. 타이타닉처럼 배가 가라앉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대영교회 목회자의 사고가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치유하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도 어색해 하지 않는 불감증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은혜가 경험되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집안의 가장에게는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이, 아내에게는 내실있는 열매를 맺는 축복,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하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십자가는 목숨을 내놓고 피값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그리스도가 올인한 증거다. 이민생활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힘이 들지만 우리들을 위해 올인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둘째 날 오전 '순종과 능력'(수3:11-17), 둘째 날 오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힘이다'(잠3:6), 그리고 주일 '하나님의 시선으로'(삼하9:3-8)라는 제목으로 이찬수 목사가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 LA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초청 여름성령축제 '행복해지는 불행극복 프로젝트!...' 주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백동조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 초청 여름성령축제를 '불행극복 프로젝트! 지금 행복하십니까?' 주제로 3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다. 5일 저녁 7시30분에 열린 셋째 날 집회에서 백동조 목사는 '불행감 퇴치 백신3'(사43:18-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백 목사는 "이사야 43장 내용은

우리들의 삶이 슬퍼하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이 살기엔 너무 아까운 존재들이다. 우리들 각자의 정체성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이며,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것 한가지로도 춤추며 기쁨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백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의식 속에 있다면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는 것일지라도 과거가 돼버린다. 따라서 이 세상은 과거와 미래만 존재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라 설명하며 "낙원과 새 하늘 새 땅은 과거도 미래도 없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야 하는 수도도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하는 미래도 없다. 낙원과 새 하늘 새 땅은 현재만

존재한다. 그 현재는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범주에 놓여 사는 자들, 다른 하나는 미래의 범주에 놓여 사는 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살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히브리서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듯 오늘의 현실에 묶이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LA사랑의교회 여름성령축제에서 백동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나성남포교회 이승구 목사초청 2013말씀집회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주제로

나성남포교회(담임 한성운 목사)는 2013 말씀집회를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1일부터 4일까지 이승구 목사(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교수 및 언약교회 협동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성령하나님은 누구신가?'(요14:16-20)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한 이승구 목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할 때 당시로서는 떠나실 것을 언급하셨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말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또다시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란 의미"라고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던 것은 잊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본질이 같은 분이시며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삼위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을 생각한다. 성부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중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니테리언적 사고방식"이라 지적했다.

이 목사는 "성령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먼저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하며 그 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벌쳐야 한다. 그분이 내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한 종교개혁의 모토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동일본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며 맞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둘째 날 집회는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고전12:3, 12-13), 셋째 날 집회는 '성령 충만과 그 결과'(엡5:15-21, 22, 25, 6:1, 5, 10-11), 넷째 날 집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요 14:17, 20, 23; 요15:5-10; 요 17:21)이라는 제목으로 이승구 목사가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새생명선교교회 설립7주년 감사부흥회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사)는 설립7주년 감사부흥회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정준성 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사). 일정은 9일(금) 오후 7시, 10일(토) 오전 7시, 11일(주) 오전 11시. ▲문의: (818)952-2449, 539-0123

## 나성소망교회 재정교실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욱 목사)는 매주일 오후 1시부터 10주간에 걸쳐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재정교실을 열고 있다. 첫 강의는 지난 8월 4일 시작했다. 교회는 워싱턴주립대학교(4063 Ingraham St, LA, CA)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213)550-7377, 380-0258

## 은혜실업인선교회 이민법 건강보험개혁안 설명회

은혜실업인선교회(회장 이도양 장로)는 오바마 이민법과 건강보험 개혁안 설명회를 18일(주) 오후2시 본 은혜교회 비전센터 내 웨딩채플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951)533-1197 이창태 집사

## 2013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춘원 목사)가 뉴라이프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 최소 8학점, 학사과정 최소 15학점 이수하고 평균 GPA가 B+이상인 자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본 교회 웹사이트 www.NLChicago.org 에서 다운로드), 신앙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담임 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성적증명서 등을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12명. ▲문의: scholarship@nichicago.org



KCCD주최 제12회 주택구입박람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 KCCD 제12회 주택구입박람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가 주최하는 제12회 주택구입 박람회가 8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스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정보 소개 △성공적인 주택장만 노하우 배우기 △은행의 특별융자프로그램과 보조프

로그램 등 시간을 마련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유니온뱅크, 케이뱅크,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뱅크, AREAA-GLA 등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최대 6만5천 달러의 주택구입보조금, 클로징 비용 보조금을 받는 방법 등 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구매 보조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남포교회 말씀집회에서 이승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S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신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미리 보는 주요 교단 9월 정기총회 핫이슈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파격적인 내용의 교단 혁신 안부터 해묵은 미자립교회 지원책 등 다양한 교회발전 방안이 총대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예장 합동의 최대 이슈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다. 2001년부터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13년 만에 찾아온 직선제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과 환규현 현 총무를 해임·처벌해야 한다는 현의안도 수심 건을 올리고 있다. '6개월간 예배출석·심일조를 하지 않을 경우 교인권리자 동중지' 등의 조항이 들어간 헌법 개정 문제는 이번 총회 때 보고되며, 내년에 열리는 제 99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예장통합의 경우 교단 장기발전 연구위원회에서 2년여에 걸쳐 마련한 '장기발전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

행되까지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회 국내선교부 체제도 대폭 조정된다.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의 청원안에 따르면 국내선교부 및 농어촌선교 업무를 통합해 '농어촌 국내선교부'로 바꾸는 한편, 국내선교부 업무 중 경찰·교정·소방선교, 직장·병원의료 선교 업무와 군 선교 업무가 한데 묶여 '군·경·특수선교부'로 탄생할 전망이다.

개 부서를 핵심적인 5팀(선교·교육·사회평신도·재무·자산관리팀), 1실(기획실), 2사(출판사, 기독교타임즈)로 바꾸고 인력을 104명에서 63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투명화 방안으로는 감독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기 전 감독회의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서울 여의도 총회회관 건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올 총회에서는 회관 건축경과 보고와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총회 부채문제 해결 논의가 핵심 사

### 선거·재정 투명성 확보로 한국교회 재부흥 초석 놓는다

지난해 총회가 비정상적으로 파회된 후 결성된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조사한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수용 여부도 관심거리다.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 등 총회 개혁을 바라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밖에 은금재단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납골당 문제, 아이티 구조금 전용, 총회세계선교회(GMS) 문제 등도 이슈다. 다락방 이단 해제 의혹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탈퇴하고 관련자를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현의안

원회는 부총회장 선거의 노회원 직선제를 제안했다. 2만2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65개 노회 소속 노회원 전원이 직접 투표해 부총회장을 뽑자는 것. 현재는 총대 1500여명의 투표로 뽑는다.

총회 재판국의 권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배심원 제도를 신설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재판국 전문위원을 교단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고, 재판국 판례집을 정기적으로 출간·배포하자는 내용이다. 총회 기획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총회원들의 결의와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개편안이 실제 시

5년여 내용을 끝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의 권한 분산과 본부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최근 마련된 잠정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회장은 현행 전임 4년제에서 2년 겸임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감독회장과 교회 담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되 임기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감독회장 사역을 하면서도 영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항 검토 등 감독회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임기만 줄여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

본부 구조는 현재의 국 체제에서 팀 체제로 개편된다. 본부 26

안이다. 약 220억원이 쓰인 회관 건축은 서울 유포동 현 총회회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진행됐다. 더구나 신축 회관 건물이 10여개 층을 임대하기로 했던 민간기업 알앤엘파이오가 최근 2개 층만 임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침은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부 건물을 기증받아 2008년 여의도 총회회관 건축을 시작해 지난달 10일 영등포구으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22일 완공 감사에 배를 드릴 예정이다.

### 예장 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

#### 박덕기 목사 '후보 유보' 2파전

예장 합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에 출마한 박덕기(광주 송정중앙교회)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제98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김영우(서천읍교회) 백남선(광주 미문교회) 목

사를 대상으로 직접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목사나 부서기 후보인 이은철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유보 결정을 내렸다. 부회계 후보인 김두봉 장

로는 차기회의 때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목사에게 등록 유보가 내려진 것은 '정기노회 때 본인 출석 없이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것은 무효'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박 목사는 지난 4월 남광주노회 때 출석하지 않고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관위는 총회장 후보로 안명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김영

우 백남선 목사,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김신길 장로를 확정했다. 또 서기에는 김영남 목사, 부서기 권재우 이규삼 목사, 회록서기 최우식 목사, 부회록서기 김정훈 목사, 회계 최수용 장로, 부회계 서병호 장로를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다음 달 6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임원 후보 정경발표를 갖는다.

### "종북·사기 집단" ...막가는 온라인 기독교 비하 막말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 사실처럼... 여론 선동

온라인상에 기독교에 대한 비하가 도를 넘어섰다. '개독교', '풍경(성경을 비하하는 말)' 등 막말은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기도 한다.

동시 접속자 수 2만여 명에 이르는 대형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는 '교회의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성경에 새벽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교회는 성경에 따라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속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른다"면서 "이는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새벽부터 교회에 나간 교인들은 점차 교회에 중독 돼 가정불화를 일으키게 된다"고도 했다. 이 글에는 '개독교는 사기 집단',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식의 댓글이 수백개 달랐다.

얼마 후 새벽기도를 언급한 성경구절이 인용된 반박 글이 올라오면서 이 글은 삭제됐지만, 새벽기도를 비난하는 게시물은 줄을 이었다. '극혐(극한 혐오)'라는 제목과 함께 한 교회의 새벽기도회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고, 또 다른 일베 회원은 '내가 직접 목격 했는데 연세대는 매일 새벽 5시에 가서 새벽기도를 해야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목회자들을 비난 하는 글도 쉽게 발견된다. 교계에서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소망교회 박성희 원로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조차 평양과학기술대 설립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종북좌파'

로 낙인찍혔다. 한 회원은 "꼭 목사가 복국의 심장인 평양에다 신도의 헌금 440억을 들여 평양과학기술대를 짓고 국내 정보통신 전문가들과 동유럽 교수진을 초빙해 복고 해커 양성과 군 첨단화에 기여했다"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일어난 원인은 결과적으로 꼭 목사가 평양과학기술대 설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묻지마식 비난'도 계속 되고 있다.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는 '개독교 연예인 리스트'라는 제목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연예인들의 이름과 소속사를 공개하며 '역겹다', '더러운 연예계'라며 막말을 퍼부은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에는 '안티기독교' 관련 20여개 사이트가 검색 됐으며 회원수가 1만 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포털사이트 다음 관계자는 "'개독교'라는 표현이 비방은 맞지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심의결과가 나오면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삭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상에서의 특정 인종·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상의 글 100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의했지만 종교에 대한 적개심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 교회 언론회는 "종교에 대한 적개심과 명예 훼손 사안이 심의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지역 비하와 마찬가지로 종교 비하도 당연히 개선권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교회 카페, 주민위한 개방형 심터로 인기

교회에 카페형 친교실이 들어서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처음엔 교인들 간 친교를 위해 다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카페 붐이 일어나며 교회카페는 지역사회에 개방된 주민들의 심터로 발전했다. 이제 교회카페는 소외계층을 위한 수익금 기부와 청년·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와의 접점을 늘려가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목양감리교회(김완중 목사) 내 카페 '술' 입구에는 '당신의 커피 한 잔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놓여 있었다. 2011년 12월 문을 연 이 카페는 매출의 10%를 커피 원산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한다. 기독교 공정무역 커피업체 '커피피플'을 통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커피를 공급받고, 판매액의 일부를 다시 기부해 현지의 학교 건설 등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사역이 안 정되면 어르신이나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아예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 카페를 세운 교회도 있다. 인천 부평구의 카페 '와일머니'는 등불감리교회 김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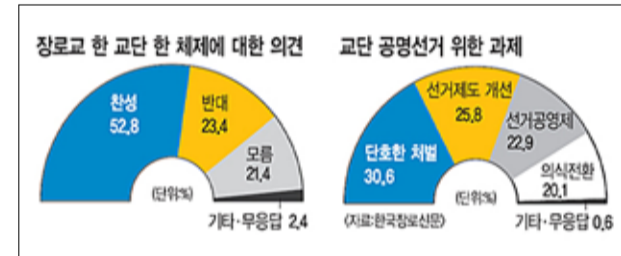
목사가 노인 구직용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어르신 6명이 일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대, 청년을 돕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다. 2011년 교회 1층에 카페를 만든 성복중앙교회(김성운 목사)는 수익금 전액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장학금이 1800만원이 넘는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도로와 마주한 교회 외벽을 아예 허물었다. 교회와 입구도 따로 있어 겉에서 보면 교회인지 카페인지 쉽게 알 수 없다. 서울 종로6가 중앙성결교회도 새로 마련한 안식관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카페를 열어 청년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교회카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주변 상권과 충돌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는 지역 교회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카페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 한국장로신문 설문 조사

장로 2명 중 1명은 '장로교 한 교단 다 체제' 방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로들 중 약 38%는 교단의 선거문화가 혼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 응답자 중 37.8%가 교단선거 문화가 혼탁하다고 답했고, '건전하

다. 장로들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45.7%가 '추락했다'고 답했고, '개선됐다'는 9.4%에 그쳤다. '목회자 교회대물림'에 대해서는 반대가 87.2%로 압도적이었다. 조건부 찬성이 11.2%였고, 찬성은 0.7%였다.

현 정부의 분야별 정책선도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북정책(71.1점)이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경제정책(58.7점)과 복지정책(58.5점)이 뒤를 이었다. '평화통일은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0년 이내'가 36.4%로 가장 많았다. 10~30년(22.5%), 5년 이내(21.4%), 3년 이내(7.7%) 등의 순이었다. '통일이 불가능할 것'도 6.1%였다.

### 장로 2명중 1명 '장로교 한 교단 다 체제' 찬성

4일 예장통합교단을 기반으로 한 한국장로신문이 지난달 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교단 소속 장로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장로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하나님'을 바라는 장로들의 소망이 엇보였다. 특히 장로교 '한 교단 다 체제'와 관

련, 응답자 중 52.8%가 찬성했다. 이 제도는 하나의 장로교단 아래 각 교단체제의 독립성을 인정하자는 방안으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반대는 23.4%, '모르겠다'는 21.4%였다.

교단의 선거문화 풍토는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는 19.3%에 불과했다. 40.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공명선거를 위한 과제로는 '단호한 처벌'이 30.6%로 가장 많았다. 선거제도 개선(25.8%)과 선거공명제(22.9%), 의식전환(20.1%) 등이 뒤를 이었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온두라스

지난해 여름 8월 필라델피아에 갔을 적에 딸이 나가는 교회 울타리에 무궁화 꽃이 핀 것을 보았다. 나무 가지...

9월 24일, 육사로 방을 옮겨오며 육사 본관 앞에 나무를 베어 뿌리를 파버린 그 자리에 옮겨 심었다. 매일 같이 물을 주며...

씨앗과 흙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썩어 나오나...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나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는 것이다...

며칠 전(25일) 흑시나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보았다. 와! 내 입에서는 '마라비아(공정하다) 하고 감탄사가 나왔다. 10개월 만에 밖으로 나온...

예수님은 마태복음 13:5-6에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나는 육사 공금실의 책임자를 불러 흙을 다시 돋우고,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돌레에 울타리를 쳤다. 그것도 안심이 안되어 육사 파킹장을 만든...

지난 날 내가 살았던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 가운티 아빙톤(abington)에 있는 내 집의 울타리에는 해마다 무궁화 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온두라스는 어디를 가도 무궁화 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언젠가 이 땅에서 자라는 세대가 육사를 방문하면 활짝 핀 무궁화 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겠지? 역사를 서술하여 민족의 뿌리를 살리고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도할 뿐이다.

정권수 선교사 온두라스 육사에서



방지일 칼럼 (2)

“본대로 들은 대로”

원을 그리는 역군

복음의 역군들의 하는 일은 원을 그리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리라. 원은 그 대소 원이 다양하기도 하다. 작은 원, 큰 원 공이 동글한데 작은 탁구공 같은 원, 그보다 작은 원도 무수하다. 그보다 큰 원도 무수하다.

원은 중심을 잡고 그 반경을 고정시킨 중심에서 둘러질 때 그려진다. 반경이 작으면 작은 원이 그려지고 반경이 크면, 길면 그 반경에 따라 원은 커진다. 크고 작은 원의 수치를 원주율이라 하겠다. 중심도 고정해야 한다. 중심이 움직이면 원은 그려지지 못한다.

우리 목자들은 자기 역량대로 원을 그리고 있다하겠다. 내 역량에 맞게, 주신 달란트대로 원을 그리고 된다. 주신 또 받은 반경은 작은데, 짧은데 큰 원을 그릴 수는 없다. 작으면 작은 대로 원을 그려 만족하다. 원의 중심 그 요지부동의 중심은 중요하다. 중요하다함보다 중심이 움직이면 원은 못 그린다. 큰 원을 꼭 그려야 된다는 법이 없다. 나는 내 달란트로 역사하면 원은 그려진다. 원이면 만족하다.

원의 한 원리가 중요한 바를 알게 한다. 작고 큰 원의 분간이 없이 모든 원은 4 각각 360도다. 작다고 그 각도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큰 원 지구만한 원, 그보다 더 큰 우주가 동글다하나 그 초특대 원이라도 같이 360도일 뿐이다.

스케일이 큰 작은 원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원을 그려 크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무리한 욕구 만족을 하려함은 아니다. 우리 나그네 삶에 있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역군들은 원을 그려 만족하다. 작은 원도 좋다. 360도의 원으로 만족하다. 이는 그 중심이 잡혀 있는 증거다. 고정된 중심으로 살아가 만족하다. 이렇게 원을 그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 스케일을 크게 하신다. 내 능력이 자라게 된다.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무리하지 말고 스케일이 커질 때 큰 원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이다.

갑각동물의 성장을 어려서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눈두렁에서 게 한 마리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가서 잡았다. 게 형상은 분명한데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속은 전혀 없고 빈 껍데기뿐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죽은 게라면 요렇게 빈 껍질만 있을 수 있을까 만져보면서 살펴볼수록 이상하기만 했다. 좀 떨어진 곳에 게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얼른 가서 잡았다. 웬일이냐 말랑말랑한 것이다. 게는 게인데 껍질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껍질만 있는 죽은 게, 껍질 없는 산 게. 게가 탈피한 것임을 알게 될 때 갑각동물이 이렇게 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갑각동물은 속으로 알차게 성장했을 때 탈피하며 자란다. 허물을 벗는다. 그 강한 갑옷을 입고 다시 다른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 갑옷이 되기 전 말랑말랑한 것을 내가 잡았던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한 교훈을 얻는다. 내 능력이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하여 무리하게 역사할 때는 초점을 잃고 만다. 작은 원을 바로 중심을 꼭 하고 그려 그 내용이 충실하게 알차게 되어질 때 탈피하여 자라는 갑각동물 같이 그 작

은 원에서 탈피하여 큰 원을 그릴 수 있다.

목회자들 중에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큰 교회를 선호한다. 노골적으로 그런 요청을 듣기도 했다. “내 힘에 이 교회는 너무 적습니다. 큰 교회로 인도해주세요. 큰 교회 인도할 능력이 내게는 있습니다”의 요청이었다. 나는 이 계의 탈피 성장함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작은 교회로 되 거기서 360도의 원을 바로 그리면 일할 때 내적 충실로 탈피하여 그 교회가 크게 자람을 본다. 일터를 큰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있는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큰 원은 작은 원을 그린 자가 성장하여 그 내실에서 탈피하여 큰 원을 그리게 된다.

질이나 양이나 원의 내적 충실에서 양의 충실로 전진함이 원으로 받는 교훈이다. 내 역량은 큰 교회를 섬길 만한데 이 작은 교회는 내게 맞지 않는다는 주제 넘는 생각을 원을 그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작은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탈피하여 자라는 이치를 바로 실천함 주님이 원하시는 역군이라. “작 하였고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라”(마25:21).

하나님께서 내 작고 큰 것을 보심이 아니라 내 충, 불충을 보신다. 내 능, 불능을 보심이 아니라 충, 불충을 보실 뿐이다. 여기서 주님의 산상보훈 중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 어떻게 이 엄청난 교훈을 주셨는가. 어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까. 나의 양적으로 그의 크심에 도달 할 수는 없으나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주님의 끝까지의 그 사랑 나도 내 있는 대로 바치, 헌신, 충성은 주님의 그것과 같이 보아 주신다. 원이 작고 큰의 구별 없이 다 360도일과 같다고 하겠다. 과부의 두 뉘엿뉘 부자의 많은 액수보다 주님 보시기에는 크나함도 이 교훈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나는 내 역량대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 힘껏 역량껏 충성하는 것이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중심이 꼭 박혀야 함이다.

중심이 꼭 박혀있어야 원이 그려진다. 속죄 구령의 복음신앙의 중심에서 나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원이건 큰 원이건 360도의 원이 그려진다. 내 역에서 원이 그려져 만족하다. 비록 그 용량이 주님의 것에 비할 수 없으나 원일 때 360도가 분명하고 주님의 그 엄청난 원과 같은 360도가 된다.

주의 역군 된 나는 매일 같이 원을 그리는 자임을 알 것이다. 중심만 바로 잡혔을 때 매일 원은 내 역에서 그려진다. 작은 원이 내적 충실을 기할 때 반드시 탈피하여 다른 큰 원이 그려진다. 매일같이 원을 그리거나 매일 같이 탈피하여 더 큰 원을 그려나가는 역사가 주의 역군들의 일이다.

(1권, 1996년)

선교 펴기

SEED 선교회

평강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대신합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년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곳으로 어떠한 일을 위해 부르실까에 대한 기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선교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주님의 관심은 유럽의 무슬림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이민자가 되어 유럽에 와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네들은 유럽에 왔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그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들입니다. 최근의 소식들에 의하면 유럽지역에 급증하는 무슬림은 이미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숫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짧게는 19년, 길게는 50년 안에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의 대다수 국

가들의 인구 분포 중 무슬림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말 그대로 이슬람화 되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의 핵심은 출산율에 있어서 무슬림들의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개혁신학의 자부심이었던 네덜란드는 이미 신생아의 50%가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변화는 곧 서구사회의 변화이며 또한 아시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답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적 도전으로는 이를 위한 기도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야 생각합니다. 1세기 전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를 보냈던 서구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로 왔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며, 그들 자신들의 몸도 선교지에 물었습니니다. 이제 그 빛을 갈을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일군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ICMS방문

ICMS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02년에 이 학교에서 3개월간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013 ICMS를 40일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월2일부터 9일의 일정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여러 차례 ICMS를 하고 있는 밴쿠버의 선교센터를 방문하길 원했는데 저희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둘째로는 본부 행정과 선교사들의 보안교육 및 컴퓨터 기본 교육을 위해

서입니다. 가족 5명이 함께 LA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훈련 중인 10가정의 선교사 후보들이 훈련과정을 잘 마치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4면으로 계속)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various denominations including Wesleyan, Baptist, and others, listing pastors and service times.



우간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 여러분들께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다.

폭우와 폭염이 뒤섞여서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계절이 있어야 곡식과 실과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에 감사함으로 지내면, 이제 곧 물러갈 때가 오겠지요. 이곳 우간다도 우기속의 건기를 맞아 좀 힘들었는데 지난주부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서 농부들도 바빠지고 저희들도 물 걱정을 덜 수 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서늘하여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에 고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기도부탁을 드린 것처럼 6월 17일에 고등교육위원회와 우간다의사협회의 공동 실사 후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사항들을 현재로서는 8월 10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순에 다시 점검을 나와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9월에 있을 고등교육위원회 회의의 안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봐서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점검을 받으면 9월 회의에서 인가결정이 나라를 기대하면서 모든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장 받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정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학을 위해 기다리며 문의를 하고 있기에

허가만 나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잘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문교과서 기준을 요청 드렸었는데, 8월까지의 더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난 판 말고 최신판이나 직전 판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남상운 교수(010-5408-3302), 정효기 간사(010-9401-7458), 이유평 간사(010 6899 1210), 박시원 간사(070 4186 6995)로 연락주시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준비 중인 서버비중(서울대 전산원), E-LIBRARY 서버작업(Linksoft) 등도 원활히 진행되어 곧 도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전기 설비가 이제 몇 달째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학 중인 관계로 전력소비량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개항하고 소비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학관1층의 여러 실련실과 시설들, 의대건물에도 나머지 파넬들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정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미대학교의 제2기의 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한 지역의 땅이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측량과登記이전 등의 절차를 조만간 시작하게 되었고,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진정한 교육과 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울러 지역발전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도 잘 확보되고, 제반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이런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쿠미대학교가 새롭게 강호는 분야는 의학 분야, 에너지 분야, 그리고 농업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물학(biology), 화학(chemistry) 분야 강의를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짧게는 1달에서 3달 정도의 기

간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에도 대덕교회, 대덕한빛교회, 한밭장로교회 팀과 진료팀이 방문하여서 이 땅과 사람들을 만나고 섬겼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수고하신 김기현 권사님께서 일단 사역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성원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새롭게 합류하실 김순기 교수님, 강성규 교수님, 추수진 교수님, 한주혁 선생님, 그리고 오창현 군 등도 잘 준비하여서 기쁘고 귀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대 8월 말에 시작할 새학년도에도 적합한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월에도 장학금(한학기 50만원)에 2분이 3구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쿠미 프로젝트 후원은 새로이 다섯분이 정기후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세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물질과 함께 기도도 함께 해주심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기도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원현황은 카페 <http://cafe.godpeople.com/uganda>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보시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박시원 간사님(국제의료협력단:070 4186 6995)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쿠미방에서  
쿠미프로젝트 김선영 선교사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13면에서 계속>  
스페인과 모로코 정탐

모로코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은 지브랄트 해협을 건너 스페인으로 이주해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지나 서유럽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슬림의 물고를 막아서는 사역을 위해 저희는 일할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막아서서 여호와와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삼하 23:11-12).

확신하는 것은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 선다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9월10부터 2주간 정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Madrid)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남부의 말라가(Malaga: 북아프리카 선교의 중심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 지브랄트 해협을 통

과하여 카사블랑카(Casablanca)까지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안전과 소요 경비가 잘 채워지고, 무슬림 이민자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로코 젊은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인사

2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치료가 잘되어서 지금은 거의 회복하였습니다. 그 덕에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무슬림선교를 위한 비전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이민자 사역을 위한 팀원들이 생겼습니다. 여성사역을 위해 알바인누리교회의 H선교사, 현지사역을 위해 영국에서 한인디아스포라 사역을 해오신 K선교사, 현지 사역자이자 동료이신 S선교사입니다. 앞으로 몇 가정이 더 합류할 것을 믿습니다.

남사현 선교사 드림  
▲이메일: lfchrist@gmail.com

<5면에서 계속>

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왜곡된 사실들을 발표했음에도 그들을 도운 것은 “자유주의 미디어”였다. 미디어와 그들이 손을 잡아 진짜 의학적 사실들은 제거하고 그들이 알리기 원하는 것들만 알렸기에, 그런 왜곡된 정보가 바로 지금의 일반인들(동성애자들을 포함)에게 깊이 뿌리박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동성애는 지난번에 이어 오늘 쓴 것처럼 “유전적”이지도, “선천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들은 여러 이유로 그렇다고 믿고 또는 그렇게 믿고 싶어한다.

그들 중 이성애자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지금은 젊은 층에서 너무나도 학교와 정치에서 동성애를 정상화 시켜서 마치 쿨한 것처럼 홍보를 하기에 일부러 동성애자가 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상 진짜 동성애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도움을 받아 이성애자가 돼 다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이들의 실체에 대해 의학적, 성경적 차원에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회복과 돌아옴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시도록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가로 푸는 열쇠>

1. 에덴동산에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창3:22).
3. 므낫세의 아들(민26:31).
5. 구약성경 역사서로서 열왕기서 다음에 있는 책.
6. 작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계18:22).
8. 아라비아의 성읍(대상1:20).
10. 손뼉을 치(시98:8).
11. 젓먹이를 업을 때 둘러대는 보(욘38:9).
12. 식물의 줄기에서 갈려나간 가는 줄기(출25:32).
13.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 진 쳤던 곳(민33:10).
14. 베니게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남신으로 태양을 상징한다(왕하10:26).
15. 자질구레하게 생긴 돌(왕하19:28).
17. 성질이 사나운 짐승(고전15:32).
18.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음(대하12:3).
20. 예수님이 인류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21. 바울의 동역자 유대인 아굴라의 처(딤후4:19).
22. 더러울 정도로 인색하고 비정한 사람을 꼬집어 이르는 말(한자성어).

<세로 푸는 열쇠>

1. 살아있는 이 세상(시116:9).
2. 팔고 사고 바꿈질 하는 사람(사23:8).
3. 갓 태어난 예수(눅2:27).
4.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딤후 4:21).

4:21).

7. 어린 아이를 업어주며 돌보는 여자 하인(명).
9. 교회 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는 일. 헌금(막12:41).
10. 미기의 아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며 느도바 사람의 항리에서 살았다(대상9:15).
11. 신이 하늘에서 속세로 내려옴(약5:8).
12. 에벳의 아들인데 세겔인을 모아 아비멜레를 반역할 것을 도모한 사람이다(삿9:39).
13. 하룻사람으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이다(삼하23:25).
14. 아셀사람(대상7:33).
15.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 살림을 이룩함(명).
16. 막대기와 짚 등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눈발에 세우는 물건(명).
18. 믿지 않는 사람(고전10:27).
19. 무엇에 끼우기 위해 만든 둥근 물건(출38:5).

크	로	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로	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십자말 정답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 ~ 남하스  
2권:다 ~ 못  
3권:뜻가 ~ 소위  
4권:소유 ~ 오늘  
5권:오늘날 ~ 흥  
6권:종교 ~ 히데일  
7권: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0)

## 5.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교회 목회자)

오늘은 우리 한인교회가 보수적 복음적 기독교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종종 드러나는 약점들 중 그 세 번째 예로서, 그야말로 보수적 복음적 교육의 강점인 성경적(Biblical)이고 성경중심적(Bible-Centered)인 교육이 성경주의적(Biblicistic)이고 심지어 성경우상주의적(Bible-Idolatrous/bibliolatrous)인 교육으로 왜곡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점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하며 성장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딤후3:15-17).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것이며 마땅히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해온 바사역자들은 보수적 복음적 신학과 신앙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적 교육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주의와 성경 우상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그러한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교육을 반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오늘은 그 근간을 설명하려하지만 이와 유사한 혹은 관련된 어떠한 힌트라도 우리 사역자들에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고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주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문자주의 혹은 성경적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본주의자들의 주된 주장이어서 이렇게 불립니다). 이는 기계적 축자영감설 및 축자적 성경무오설을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신학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일반계시로 이를 수 없는 인간의 구원과 영적성숙과 신자의 의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하게 통일성이 있는 참 진리입니다. 하지

나. 성경적/성경중심적 교육을 행하고 지향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의 교육에 혹여 부지불식간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성경적/성경중심적 교육이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성경적/성경중심적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행여 성경우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우상주의란 성경책을 우상화하거나 이를 신격화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자체가 신적인 것

## 성경주의적 심지어 성경우상주의적으로 왜곡 기계적 축자영감설/축자적 성경무오설 경계

입각해, 이에 기반해 이를 그 중심에 두고 그 신앙교육에 임하며,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종 이러한 성경적/성경중심적 교육을 성경주의적이거나 성경 우상주의적인 교육으로 오해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왜곡된 교육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과 영적성숙으로 이끄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벤후1:20).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적/성경중심적 교육을 한답시고, 성경주의적으로 심지어는 성경우상주의적으로 우리의 교육을 진행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왜곡들이 이뤄졌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왜곡인줄 알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행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진경 무오인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행해진 위험한 실수일 테지요. 그러니 이제라도 바로잡고 고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성경적/성경중심

만 이는 마법사들이나 무당들에게서 보여지는 주술적인 방법마냥 기계적으로 로버트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성령께서 친히 인간 저자들의 인격과 특성과 문화와 시대와 상황 그 모든 것들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감동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계적 축자영감이나 유가적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주의는 전자를 지지하고 믿음으로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요. 또한 성경주의는 축자적 기계적 영감설에 따라 성경이 축자적으로 무오하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무오하지만 이를 축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따 맞추는 일이며 성경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파하고 단편적인 그리고 인간자신의 위안을 위해 살아있는 역동적인 말씀을 해석화 시키고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주의는 성경을 과학적인 양 축자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문자 그대로 현대에 적용한다든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아이라니의 본문들도 어떻게든 가볍고 유한한 인간의 논리로 해설한다든지,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서술과 계시를 인간의 그것들과 동일시하려 한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일입

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숙과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친히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우상화 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인데 이는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대신 보이는 성경에 집착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신 하나님을 책안에, 활자 안에 유한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태양을 가리고 있는 손가락만 보고 태양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행태라 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이며 영감하게 말해 우리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우상주의라는 왜곡된 성경이해에 입각한 교육이 실행되지 않도록, 행여 조금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그 교육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바른 복음적 보수적 성경관을 확립하고 더욱 더 경계하며 사역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 매일가성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근심없는 그리스도인1(요14:1-3)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가로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근심 없는 하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근심은 이미 삶에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시 제자들은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굳게 믿고 있었습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어더로

가실지,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막막해 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가셨던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성취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 화 근심없는 그리스도인2(요14:1-3)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자신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혜의 유한함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도착할 최종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능력으로 마련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며 그곳은 원래 우리의 본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고향은 치열하고 살기 위해 고군분

투하는 곳이 아닌 어머니의 품과 같이 내 몸을 내어맡길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운명의 끝이 다다른 곳, 그곳은 불확실과 예측불가능이 아닌 주님의 평화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내 삶의 끝에 영원히 임하게 될 주님이 마련하신 본향이 이미 있기에 근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아닌 본향을 주목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근심없는 삶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 수 근심없는 그리스도인3(요14:1-3)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며 자신의 집을 장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집이 생겨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방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색깔 방을 칠합니다.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것을 소품으로 사다가 방을 장식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딸아이를 위해서는 사방을 책장으로 만들어 도서관처럼 꾸며줍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녀석을 위해서는 천장천체를 베이스볼 경기장으로 만드니

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되는 그 방은 아이들보다 그 방을 꾸미는 부모의 기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마치 새로 집을 장만하여 아이들보다 더 실례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방을 꾸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꾸며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 준비하신 그 처소를 기대하며 갖는 소망이야말로 세상의 근심을 뒤로 할 힘이 됩니다.

## 목 천국에 가면 행복한 이유(요14:3-4)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헤어진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곤 합니다. 나보다 먼저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늘 자식사랑으로 염려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내 신앙의 선조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상하면 늘 즐거운 기운이 마음에 가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서 경험하게 될 기쁨과 행복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모형을 이룰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아버지의 절도있는 애정, 허물없이 모든 것을 주고받은 우정, 설레임으로 오는 연인과 사랑. 결코 결핍이 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 금 진리의 배타성(요14:5-6)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 한가지의 이유를 든다면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밝혔듯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진술적 서술만이 아닙니다. 다른 그 누구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이어 "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 이외는 그 어떤 누구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갖고 있는 배타적 성격 때문입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진리는 180이외의 다른 숫자를 허용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진리인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토 유일한 길이신(the Way) 예수님(요14:5-6)

우리 죄를 해결해주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예수를 언약백성과 연합시키도록 언약 안으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 안에서 그들과 연합을 이루셨고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공의의 진노를 온 몸으로 품고 죽으시는 그들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책과 형벌을 죽음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

에 겁게 드리운 먹구름 같은 음산한 안개와 같은 죄(사44:22)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졌으며(사103:12)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으며(사38:17) 바다 깊은 곳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의 남김도 없이 모두 용서받았고(골2:13)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신 이유입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8754~5 군포시 금문동 670-11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62)522-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곡광명교회 북부 교문길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외국인) VIA DEI QUINTILI 30-30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릉구 명일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 622-3 (158-053)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998-9989,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령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동 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원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안산동 1동 6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매동 2-272-5511 서울 용매동 2-272-5511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4)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새벽 5: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서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진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2-272-5511
<b>밴쿠버비블리안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성경학교: 오후 7:00(30분) 금요성경학교: 오후 7:00(30분) 금요성경학교: 오후 7:00(30분) 금요성경학교: 오후 7:00(30분)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RAI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오전 7:40 유. 초, 고, 초등부: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4)

-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묵미술선교회 화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순례자들

## E. 예루살렘 지역

E-18, Via Dolorosa

비아 돌로로사란 '비탄' 혹은 '고난의 길'이란 뜻으로 천주교에서 순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이다. 실제로 종려주일이 되면 벤테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나,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행렬의식을 치른다.

정확하게 하자면 유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베드로통곡교회) 빌라도에게 넘겨져 정식으로 기소된 박석이 있는 예수님의 재판 장소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무덤교회까지 약 1.5Km 이르는 14곳의 장소를 일컫는다. 그 중 9개(제1처-9처)는 현재 아랍권이 관리하고 있는 2m 남짓의 도로 상에 있고 5개(제10처-14처)는 무덤교회 내에 있다.

어떤 것은 성경을 근거로 붙여져 당시를 생생하게 연상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천주교가 채택하고 있는 전통에 의해 처소 이름을 붙였기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미신화 하는 황당함이 묻어나는 것

제1처 빌라도의 법정-현재는 Al-Omariyel College 교정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은 빌라도에게 재판 받기 위해 박석에 서신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다(요19:4-16). 순례단은 서로 박석 위에 한 발을 내밀어 올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비까지 우리의 맘을 아는지 지적지척 내렸다.

제2처-선포교회, 가시관교회, 채찍질교회. 요19:17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신 곳,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고 나오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Ecce-Homo)"라고 선포했다(요 19:5) 하여 The Church of Ecce-Homo라고 한다. 현재 시몬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곳은 본디 BC36년 헤롯대왕이 자신의 친구 마르쿠스 안토니오를 위해 세워준 요새였으나 로마의 디도장군이 70년에 파괴하고 잔재만 남아 있는데 '왕의 놀이'라는 놀이판 돌이 길에 있어 당시 군인들이 그것을 이용해 놀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화 'Passion of Christ'가 생각났다. 그 아픈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잃었으니 감사해야 하는데 염치가 없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선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명, 예수님 재생산을 위해 부여 받은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명을 재삼 다짐해본다.

제3처-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넘어지셨다는 지점.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거운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르메니안가톨릭 소유다. 문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은 매우 말랐으며 넘어지신 위쪽으로 십자가가 몸을 짓누르고 있다. 죄없는 주님께서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쓰러지시고 견디 또 쓰러지시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은혜의 선물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나 나의 죄 값을 치러주고 계신 주님.

제4처-고뇌의여인교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 예수님을 만난 곳이라는 지점.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더 아팠을 것이다. 거기 에 키워준 아버지 요셉도 있었을

다. 진실이며 역사이며 사실인 예수님의 십자가지고 가신 일을 미신화 해 오히려 격하시키는 것 같은 대목이기도 하다.

제7처-두 번째 넘어지셨다는 곳. 주님의 고난을 통한 사랑을 느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지 모르지만 모성적 구원을 강조하는 천주교에서는 요셉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제5처-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로마군인이 아무나 무작위로 대신 짐을 지워 일을 진행하는 당시의 상례대로 그를 잡아 벗겨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 그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뒤에서 지고 가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역지로 저도 축복"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

제6처-베로니카 만난 곳. 성경에는 없는 사건인데,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드렸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그녀가 입은 옷에 박혔다는 유전에 따라 붙여진 곳



예수님의 빈무덤

제9처-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셨다는 지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넘어지셨다.

제10처-골고다 지점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그라서 이 길 내내 '금언'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순례객들은 자동으로 금언하게 된다.

제8처-성카탈람보스교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고 하신 지점. 이번 세계한인목회자제마나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이다. 말세지말을 강조한 말씀이지만 미래를 위해 교회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어내신 강사들도 있어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방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9처-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셨다는 지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넘어지셨다.

제10처-골고다 지점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예수님의 빈무덤

제9처-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셨다는 지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넘어지셨다.

제10처-골고다 지점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레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리스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무덤교회를 천주교의 승천당과 달리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이라 부르고 있다. 프로테스탄트는 성 밖 다메섹 문 앞 언덕이 골고다언덕이라 믿고 있으며 그곳에 정원무덤(The Tomb of Garden)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11처-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으로 알려진 곳.

제12처-갈보리(갈바리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곳. 제단 뒤에 큰 황금기초에는 마른 예수님 부활상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제13처-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곳. 아리마대 요셉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향품을 넣거나 기름으로 씻는 등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관한 곳에 눕혀놓았다는 곳. 직사각형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다. 주변에는 그리스정교회에서 쓰는 예배용 향료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제14처-예수님의 무덤, 일명 천사성당. 예수님이 묻히신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무덤(마27: 60-61). 천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곳(마28:1-7)이다.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 피중신 목사 초청 2013년도 국내·외 성회 일정



·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 숭실대학교 신학대학 및 목회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미국 Philadelphia Faith Center (Min, Dm)  
· 미국 Henderson대학교 (Th, D)  
· 미국 Boston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원장  
· 한성신대학교 운영이사장 및 목회원 원장  
· 아세아연합신학교 CRC 교수  
· (국제)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1월

- 1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1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 2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2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 3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30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2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3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4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5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6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7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8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9일 오전 10시-11시 서울 아현반석교회(김영환 목사)
- 3월 10일 오전 10시